

{2018 수능 완벽 대비}  
고난도 「긴 지문/신유형」 강화

# 후려도감 근심 비문학 근기

김기덕(랍비) · 나태영(나쌤) | 지음



# [훈련도감 비문학]과 함께하는 국어 만점 공부법!

[훈련도감 비문학]을 통해서 비문학 훈련을 하기 위해 이 책을 만나게 된 '진짜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이나 수험생들이 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하고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하며 생각의 훈련을 할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출 훈련을 할 수 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지문분석, 문제풀이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부는, 특히 기출은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책이 알려 주는 3단계 훈련 가이드를 읽어 본 후에 그 방법에 따라 01Day부터 20Day까지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훈련이 그렇듯이 기출 훈련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훈련도감 비문학]을 통해서 1회독만 제대로 하면 2~3회독을 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으로 1번만 제대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앞쪽에 20일에 이 책을 끝내는 계획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되, 특정 영역이 약한 경우라면 그 영역만 골라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왜 기출을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갑시다.

## Why 1 기출 분석은 왜 필요한가?

→ 수많은 수능 국어 문제들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그래요, 바로 수능 문제예요. 그다음은 6, 9월에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랍니다. 수능 문제가 가장 좋은 이유는 두 달에 걸쳐 교수님들이 지문과 문제 출제하고, 이를 실력과 선생님들이 검토하여 수십 번의 수정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역시 실력과 선생님들이 모여 한 달 가까이 합숙하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수십 번의 검토와 수정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문제 출제와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문과 문제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문제들 중 '명품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험이나, 시중에 출간되는 교재의 문제들은 모두 이 수능 시험 문제 및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즉 '기출문제'를 모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들은 명품이자, 모든 국어 문제들의 모델이 되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는 말이 있지요? 수능 공부를 하려면 수능 국어에 어떤 지문과 문제가 출제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해요. 어떤 문제로? 바로 명품이자 모델인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것은 수능 국어 시험 대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인 거예요.** 기출문제로 수능 국어 문제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능 날 아침 국어 시험을 볼 때 더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Why 2 왜 기출 '훈련'인가?

→ 이 책의 이름에 괜히 '훈련'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훈련'이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의 훈련'을 말해요. 수능을 준비하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지만, 정작 그 기출문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기출문제를 풀기만 해도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출문제는 단순히 풀기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의 방식으로 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은 수능 국어영역에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지식과 방법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동시에, 01Day에서 20Day까지의 '훈련'을 통해 1등급 문제 풀이의 비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단계 훈련에 대한 본격적인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단계 훈련 / 목표시간 내에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라!

### 1- A 훈련지침

★ 1단계 훈련 ★ 목표시간 내에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다!

제재	인문	출처	2015 9월 평가원모의 B형	난이도	하	목표시간	6분
지문독해 방식	이 지문은 맹자의 유학 사상, 그중에서도 '의' 사상에 대해 설명한 글이죠. 발문을 훑어보면 알겠지만, 이와 같이 개념이나 사상을 설명하는 지문이 나오면 중심 소재에 대해 세세하게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니까,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단별로 핵심을 찾아 체크해 가면서 독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01~0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사상이 양주(楊朱)와 묵자(墨翟)의 사상에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孟子)는 유학

이 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예술의 비문학 영역이 난도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난도가 쉬운 지문부터 어려운 지문까지 총 94개의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모든 훈련이 끝납니다. 1단계는 정해진 시간 내에 각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단계입니다. 지문과 문제의 난도에 따라 문제를 푸는 시간은 달라지죠. 국어를 잘 못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미 다 풀어본 지문이라서 시간이 남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국어 실력이 어떻든 간에 일단 1단계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지문을 분석하고 근거를 찾아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자신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습관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훈련**은 지금의 내 상황과 국어 실력, 즉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 진단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1단계 훈련을 마치고 2~3단계 훈련까지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1단계 훈련이 점차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Q1 선생님, 저는 이미 기출을 여러 번 풀어 봐서 지문이란 답이 다 기억이 나는데, 굳이 1단계 훈련이 필요한가요?

A1 기출 분석, 기출 훈련이라는 것은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이 뭔지를 기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지문 분석 능력을 기르고 정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제대로 된 기출분석이자 기출훈련이죠. 따라서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접속어, 중요 단어나 문장, 문장 간의 관계, 문단 간의 관계 등에 유의해서 지문을 분석하세요. 마찬가지로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더라도,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 정답의 근거가 지문의 어떤 부분에 있는지, 오답 선택지는 어느 부분이 틀려서 오답이 되는지 등을 따져 가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는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에 밑줄을 치면서 독해합니다. 이때는 지문의 내용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을 모두 아우르면서 독해를 해야겠죠.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지문에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본인이 정답 또는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지문에서 반드시 확인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각의 훈련'이에요. 1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맞든 틀리든 지문을 통해 답을 도출하는 사고과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 2단계 훈련 / 스스로 지문을 분석하며 독해력을 키워라!



### Self 지문분석

★ 2단계 훈련 ★ 스스로 지문을 분석·요약해서 독해력을 키운다!

- 1문단 : 공자 사상을 계승한 맹자는 사회의 혼란 가중되던 시대에 ( )의 중요성을 강조함
- 2문단 : 공자는 사회 혼란 해결책으로 ( )을 강조했지만, '의'가 인을 실천함에 합리적 기준이 됨
- 3문단 : 맹자의 '의'는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 )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 규범임
- 4문단 : 맹자의 '의'는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 )의 추구를 배제
- 5문단 : 맹자는 '의' 실현의 바탕은 ( )로 인간의 마음에는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다고 봄
- 6문단 : 맹자의 '의'의 특징은 ( )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는 데 있음
- 7 전체주제 : [

### | 지문 구조도 |

1 맹자의 '의' 사상 형성 배경
2 공자의 '의' 개념
↓ (계승·강화)
3 맹자의 '의'의 특징 ① : 필수 규범
4 맹자의 '의'의 특징 ② : 이익 배제
5 도덕 내재주의
↓ (바탕)
6 맹자의 '의' 특징 ③ : '의'의 실천의 중요성

1단계 훈련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빠르게' 지문을 독해했다면, 2단계 훈련에서는 지문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십 분이 걸리고 몇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제대로 지문을 분석해야 합니다.** 기출훈련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귀찮기도 하고, 지겹게만 느껴져서 많은 학생들은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만 풀면 '공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 2단계 훈련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문분석을 자기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문 독해를 다시 할 때에는 중요한 문장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지문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점검하면서 지문의 내용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단계 문제풀기에서 단순히 감으로 중요한 문장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은 왜 중요한 문장인지 정말 중요한 문장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또 접속어라든가 핵심 어휘는 독해기호 세모나 동그라미를 활용해서 꼼꼼하게 읽으세요. 각 문단별로 내용은 제대로 파악했는지, 구조는 제대로 파악했는지 분석합니다. 독해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독해기호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만약 더 쉽고 효율적인 본인만의 표시법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지문분석 훈련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독해 기호

1. 밑줄

중요한 내용에 밑줄 째~악! 특히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꼭 밑줄을 치세요. 내용을 이해하고 선택지의 근거를 찾을 때 도움이 돼요.

2. 

정义的가 나올 때 핵심 개념 or 글 전체의 중심 화제 or 문단의 중심 화제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세요. 키워드와 핵심 포인트를 찾을 때 도움이 되고, 위치를 빨리 찾을 수 있어 문제풀이 시간도 단축돼요.

3. 

접속어(그러나, 그리고, 또한, 한편, 예를 들어 등)에 세모로 표시하세요. 문장별, 문단별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4. ( )

사례(예시)나 관형절(특정 개념을 수식하는 부분)에 괄호로 표시하세요.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5. /

'인과 관계' 또는 '조건 - 결과'처럼 앞뒤 내용을 구분 지을 때 사선으로 표시하세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6. 번호(①, ②, ③ 또는 (1), (2), (3))

대등한 내용이 나열되거나, 특정 개념의 하위 개념이 제시될 때 번호를 매기세요. 복잡한 내용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⑤  기호  $n \times n$ 의 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절반으로 축소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frac{n}{2} \times \frac{n}{2}$ 의 가상 영상을 만들고 화소값을 채운다. 이때 입력 영상의 화소들 중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한 칸씩 건너뛰면서 화소를 선택해 가상 영상의 화소에 복사한다. 이러한 ① 선택 복사 방법을 쓰면 입력 영상의 화소 중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 영상이 왜곡되어 보인다. 특히 글자와 같이 가로세로 방향으로 흑백의 영역이 뚜렷이 구별되는 영상의 경우에는 글자 모양이 변한다. / 따라서 입력 영상의 인접한 4개의 화소값의 평균값으로 가상 영상의 하나의 화소값을 채우는 ② 영역 축소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화소값을 평균값으로 채우기 때문에) 명암 대비가 강한 영상의 경

2단계 훈련에서 지문분석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지문의 어떤 부분을 물어봤는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걸 기출 분석을 많이 안 했거나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합니다. 문제의 모든 근거가 지문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훈련을 하면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후에는 1단계 훈련을 하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지문을 읽으며 보통 이런 내용이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능동적인 독해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훈련도감 비문학]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Q2** 선생님, 지문분석이 문제를 풀기 위해 중요한 것이라면 왜 1단계에서 지문분석을 안 하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2단계 훈련에서 지문분석을 하는 거죠?

**A2** [훈련도감 비문학]의 목적은 어떤 비문학 지문이 나오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1등급을 맞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을 보는 각 학생들의 현재 수준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각자의 실력을 자신이 알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방법을 스스로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부터 무작정 시간을 들여 지문을 분석하기 보다는 내 실력을 먼저 점검하고 이후에 하나하나 천천히 분석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1단계와 2단계 훈련이 각각 따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1단계 훈련 과정에서 동시에 2단계 지문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가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결국 실전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2단계 훈련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문분석이 모두 끝났다면, Self 지문분석의 괄호 속에 문단별로 핵심 키워드를 넣으면서 문단별 주제를 파악하고 전체 주제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지문 구조도도 확인해서 글의 흐름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는 것도 좋아요.

### 3단계 훈련 / 틀렸거나 헷갈린 문제를 다시 풀고 문제분석을 하라!

Self 문제분석		★ 3단계 훈련 ★ 틀린 문제, 헷갈린 문제는 정답의 근거를 찾아 다시 풀고, 문제분석을 한다!				정답/문제분석 2쪽	
문제풀 날	[ ]월 [ ]일	지문분석 / 훈련평가	[ ]월 [ ]일	목표시간 체크	[ ○ / × ]	점수 체크	[ ] / 9점
정오답 체크	01 (○ / × / △)	02 (○ / × / △)	03 (○ / × / △)	04 (○ / × / △)			
문제분석 훈련지침	1 틀린 문제는 ×, 감으로 맞힌 문제는 △ 표시하세요, 그리고 문제 오른쪽 '문제풀이법'을 보고 정답의 근거를 정확히 찾아가며 다시 푸세요. 이때는 자신의 생각과 문제풀이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답의 근거를 찾아 완벽하게 문제를 맞혔더라도 오답 선택지 중에 애매한 것이 없었는지 점검하세요. 2 그래도 또 틀렸다면 {문제분석식 해설}의 내용과 자신이 문제를 풀 과정을 비교하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점검하세요. 맞힌 문제라도 문제 유형에 따른 단계별 문제풀이법, 정답의 근거 찾기, 오답 선택지 분석까지 모두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문제분석을 해야만 국어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1단계 훈련에서 풀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3단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은 문제 풀고 답이 맞았는지 확인하고 틀린 문제는 해설을 읽어 보는 식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죠? 이 책은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이후에 해설지는 보조의 역할만 하죠. 정답을 확인해 보면 맞힌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맞힌 문제라고 해도 정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으로 풀 문제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1단계에서는 문제풀이 시간도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정답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답의 선택지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출 분석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맞혔고 정답의 근거를 모두 찾았고 정답 이외의 다른 4개의 선택지에 대한 근거까지 완벽하게 찾은 문제의 경우에만 그냥 넘어가세요. 그 밖의 경우라면, 다시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대충대충 하면 훈련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이 책은 킬링타임용 교재가 될 뿐입니다.

#### 문제풀이 훈련을 위한 유형별 문제풀이법

- ◎ 키워드 : 문제풀이를 할 때 각 선택지의 핵심 어휘를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의 근거가 지문 속의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야 하죠.
- ◎ 핵심 포인트 : 선택지에서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을 말합니다. 핵심 포인트의 내용과 지문 속의 내용을 비교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가려내야 하죠.

#### 1. 내용 일치 문제

- 1단계 : 각 선택지를 분석하고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세요.
- 2단계 : 선택지에서 키워드를 정해서 지문의 해당 내용을 찾으세요.
- 3단계 : 선택지의 내용이 맞는지를 지문과 대응시키며 판단하세요.

#### 2. 지문의 핵심 정보에 대한 이해 문제

- 1단계 : 핵심 정보의 개념(의미)을 지문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세요.
- 2단계 :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세요.
- 3단계 : 지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으로 적절인지 판단하세요.

#### 3. 지문의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

- 1단계 : 각 선택지의 핵심을 분석하세요.
- 2단계 : 각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문단을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하세요.
- 3단계 :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처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세요.

#### 4. 지문과 <보기>의 공통점 및 차이점 파악 문제

- 1단계 : <보기>를 분석하면서 지문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세요.
- 2단계 :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세요.
- 3단계 : 공통점 및 차이점이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 5. 서술상 특징 파악

- 1단계 : 각 선택지에서 제시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세요.
- 2단계 : 해당 특징이 있는 문단을 지문에서 찾으세요.
- 3단계 : 적절성을 판단하세요.

#### 6. 특정 관점에 해당하는 사례 찾기 유형의 문제

- 1단계 : 지문에 나오는 관점을 정리하세요.
- 2단계 : 각 선택지의 구조를 통해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세요.
- 3단계 : 1단계에서 정리한 관점을 바탕으로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 내용(관점)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 7. 지문의 내용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문제

- 1단계 :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하세요.
- 2단계 :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세요.
- 3단계 : 각 선택지의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세요.

#### 8. 어휘의 의미 파악 문제

- 1단계 : ㉠~㉢을 각 선택지의 어휘로 바꾸어 쓸 수 있는지 판단하세요.
- 2단계 : 지문의 ㉠~㉢의 자리에 각 선택지의 어휘를 대신 넣어 그 문장을 다시 읽어 보세요.
- 3단계 : 문장의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며 적절성을 판단하세요.

#### 9. <보기>의 상황 추론 문제

- 1단계 : 지문 내용을 중심으로 <보기>의 상황을 분석하세요.
- 2단계 : 지문 내용을 적용했을 때 대상이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추론하세요.
- 3단계 :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여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세요.

다시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옆에 있는 문제풀이법을 참고하면서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생각의 근거를 찾는 일입니다. **내가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의 근거를 찾았는지, 또 왜 맞다고 생각했는지 틀리다고 생각했는지를 모두 꼼꼼하게 기록하세요.** 귀찮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한 후에야 비로소 여러분은 해설지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해설지의 실질적 지문독해와 문제분석식 해설을 보면서 자신이 문제를 풀 과정과 하나하나 비교해 보세요. 물론 해설지처럼 완벽하게 지문분석을 하고 각 선택지의 근거를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학생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은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문제를 맞혔더라도 문제 유형에 따른 자신의 단계별 문제풀이법이 적절했는지, 정답의 근거를 올바르게 찾았는지, 오답 선택지의 근거가 적절한지를 점검해 보세요. 2단계 훈련에서 한 지문분석의 내용도 비교해 보고요.

여기까지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답지의 해설이 이해가 안 간다면? 저자인 랍비 쌤과 나태영 쌤에게 '직접' 질문해 주세요!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 랍비 쌤 카톡 아이디 : Rabbi

★ 나태영 쌤 카톡 아이디 : gnalgongbu

**Q3** 선생님, 저는 이미 기출을 여러 번 풀어 봐서 제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한데,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똑같이 1~3단계를 따라해야 하나요?

**A3** 이미 본인만의 지문분석 방법과 문제풀이 방법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방법이 모든 지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 책에 나오는 훈련 방법, 실질적 지문독해, 문제분석식 해설과 비교해 보며 무엇이 더 옳은지를 찾아야 합니다. 기존에 하던 자신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수정해야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배우는 것은 오히려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자신만의 체화된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훈련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훈련을 마치는 것이 힘들더라도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하자면, 기출문제는 그냥 '푼다고' 실력이 오르거나 성적이 오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명 수능 날까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게 될 텐데, 지겹다고 느껴질 때는 항상 이 책의 해설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지문을 이 해설지 정도로 완벽하게 남에게 해설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신있게 할 수 없다면, 아직은 더 겸손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더 '훈련'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나 음악가들도 '이미' 잘하지만, '더 잘하려고' 훈련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고난도 SPECIAL : 05Day, 12Day, 20Day**

→ 2017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시험의 변화에 맞추어 고난도 긴 지문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 **05Day, 12Day, 20Day**는 특별하게 고난도·긴 지문만으로 구성했습니다. **05Day**에는 2017학년도 수능과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12Day**와 **20Day**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인 **Leet** 언어이해 기출문제에서 엄선한 지문과 문제를 실었습니다. 자신의 성적이 상위권이라면 책에 제시된 순서대로 풀어도 상관없지만, 중·하위권이라면 **05Day, 12Day, 20Day**를 일단 건너뛰고 다른 내용을 순서대로 다 풀어 본 다음, 마지막으로 이 3일치를 푸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거예요.

01Day	02Day	03Day	04Day	<b>05Day</b> 고난도 SPECIAL
06Day	07Day	08Day	09Day	10Day
11Day	<b>12Day</b> 고난도 SPECIAL	13Day	14Day	15Day
16Day	17Day	18Day	19Day	<b>20Day</b> 고난도 SPECIAL



# [훈련도감 비문학]을 100% 씹어 먹는 10계명

## 01 “배운 대로 비문학 지문독해 훈련을 한다.”

→ 무작정 읽지 말고, 무작정 풀지 말고, 제발 ‘배운 대로’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기출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것은, 기출문제집으로 코를 풀고 휴지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 02 “남에게 설명이 가능할 정도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답을 고른다.”

→ ‘대중 A 같아서 정답은 ㉓번인 것 같아!’ 같은 생각으로 문제를 풀지 마세요. 동네 초등학교 꼬마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푸세요.

## 03 “해설지는 최후의 보루이다. 중간에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체크하고 제일 마지막에 해설지를 활용한다.”

→ 해설지를 보는 것은 가장 나중입니다. 해설은 여러분이 만들어 내는 것이고, 해설지는 여러분의 해설과 비교할 때 쓰는 것입니다.

## 04 “틀린 문제가 있다면 초등학교생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대체 왜 이 근거가 틀렸는지 충분히 생각해 본다”

→ 여러분이 고른 답이 비록 ‘오답’일지라도, 그 오답을 고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근거가 왜 틀렸는지 직접 검토해 보고, 반박도 해 보면서 자신의 사고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 05 “맞힌 문제의 해설과 본인의 근거를 비교하면서, 해설지와 자신의 생각이 다른 부분은 없는지 살펴본다.” & “틀린 문제도 동일하게 한다.”

→ 자, 이제 해설지를 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맞힌 문제 역시 근거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정답을 맞혔다고 해서 반드시 해설까지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틀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해설을 해설지와 비교해 보고 다른 부분이 있나 확인해 봅니다.

## 06 “해설지가 납득이 안 가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 혹은 누구한테든 질문해서 본인이 생각한 근거에 논리적인 허점은 없는지 피드백을 받아 본다.”

→ 해설지가 납득이 안 가거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해설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 쌤들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근거에 혹시나 논리적인 허점이 있거나 해설지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한 번 피드백이 이루어진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랍비 쌤 카톡 아이디 : Rabbi / 나태영 쌤 카톡 아이디 : gnalgongbu)

## 07 “전반적인 문제 구성과 지문을 다시 한 번 훑어보면서, 출제자가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는지 곰씹어 본다.” & “예전에 풀었던 지문들과의 유사성을 생각해 본다”

→ 해설지를 보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훈련이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출제자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했는지, 어떤 문장을 정답인 선지로 출제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08 “어려웠던 부분이나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왜 어려웠는지, 그렇다면 그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 본다.”

→ 문제를 풀 때 분명 어려웠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까 그 타이밍에 왜 막혔는지, 어떤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었던 건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09 “잘 이해가 안 되었던 지문은 이해가 될 때까지 충분히 생각해 본다.”

→ 지문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해설지의 내용독해 부분과 비교하면서 꼭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 보세요.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은 단기간 내에 느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됩니다.

## 10 “결국 ‘비문학 훈련’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 과정을 즐겨라. 즐길 수 없다면 견뎌라.”



# Contents

<b>01Day</b>	<b>A [인문]</b> 2015 9월 평가원모의 B형	12
	<b>B [사회]</b> 2015 9월 평가원모의 B형	14
	<b>C [과학]</b> 2016 9월 평가원모의 A형	16
	<b>D [기술]</b> 2015 수능 A형	18
	<b>E [예술]</b> 2015 9월 평가원모의 공통	20
<b>02Day</b>	<b>A [인문]</b> 2015 6월 평가원모의 A형	22
	<b>B [사회]</b> 2015 수능 A형	24
	<b>C [과학]</b> 2014 수능 A형	26
	<b>D [기술]</b> 2015 9월 평가원모의 A형	28
	<b>E [예술]</b> 2014 9월 평가원모의 A형	30
<b>03Day</b>	<b>A [인문]</b> 2014 9월 평가원모의 A형	32
	<b>B [사회]</b> 2015 6월 평가원모의 B형	34
	<b>C [과학]</b> 2016 6월 평가원모의 A형	36
	<b>D [기술]</b> 2016 9월 평가원모의 A형	38
	<b>E [예술]</b> 2014 9월 평가원모의 B형	40
<b>04Day</b>	<b>A [인문]</b> 2014 수능 B형	42
	<b>B [사회]</b> 2015 6월 평가원모의 A형	44
	<b>C [과학]</b> 2016 6월 평가원모의 B형	46
	<b>D [기술]</b> 2016 6월 평가원모의 A형	48
	<b>E [예술]</b> 2013 수능	50
<b>05Day 고난도 SPECIAL</b>	<b>A [사회]</b> 2017 수능	52
	<b>B [기술 + 예술]</b> 2017 9월 평가원모의	56
	<b>C [예술 + 과학]</b> 2017 6월 평가원모의	59
<b>06Day</b>	<b>A [인문]</b> 2013 6월 평가원모의	62
	<b>B [사회]</b> 2014 6월 평가원모의 B형	64
	<b>C [과학]</b> 2015 수능 A형	66
	<b>D [기술]</b> 2013 9월 평가원모의	68
	<b>E [예술]</b> 2012 9월 평가원모의	70
<b>07Day</b>	<b>A [인문]</b> 2014 6월 평가원모의 B형	72
	<b>B [사회]</b> 2013 수능	74
	<b>C [과학]</b> 2015 6월 평가원모의 B형	76
	<b>D [기술]</b> 2015 6월 평가원모의 A형	78
	<b>E [예술]</b> 2012 6월 평가원모의	80
<b>08Day</b>	<b>A [인문]</b> 2016 6월 평가원모의 B형	82
	<b>B [사회]</b> 2016 6월 평가원모의 공통	84
	<b>C [과학]</b> 2015 수능 B형	86
	<b>D [기술]</b> 2012 9월 평가원모의	88
	<b>E [예술]</b> 2013 9월 평가원모의	90
<b>09Day</b>	<b>A [인문]</b> 2016 9월 평가원모의 B형	92
	<b>B [사회]</b> 2016 6월 평가원모의 공통	94
	<b>C [과학]</b> 2016 9월 평가원모의 B형	96
	<b>D [기술]</b> 2011 수능	98
	<b>E [예술]</b> 2013 6월 평가원모의	100
<b>10Day</b>	<b>A [인문]</b> 2015 수능 B형	102
	<b>B [사회]</b> 2016 9월 평가원모의 B형	104
	<b>C [과학]</b> 2013 수능	106
	<b>D [기술]</b> 2012 수능	108
	<b>E [예술]</b> 2014 수능 B형	110

11Day	A [인문]	2014 9월 평가원모의 B형	112
	B [사회]	2016 9월 평가원모의 A형	114
	C [과학]	2014 6월 평가원모의 B형	116
	D [기술]	2013 6월 평가원모의	118
	E [예술]	2015 6월 평가원모의 공통	120
12Day 고난도 SPECIAL	A [인문]	2015 LEET 언어이해	122
	B [사회]	2016 LEET 언어이해	126
	C [과학]	2016 LEET 언어이해	130
13Day	A [인문]	2017 수능	134
	B [사회]	2011 9월 평가원모의	137
	C [과학]	2014 9월 평가원모의 A형	140
	D [기술]	2013 수능	142
	E [예술]	2011 수능	144
14Day	A [인문]	2015 6월 평가원모의 B형	146
	B [사회]	2016 수능 B형	148
	C [과학]	2017 수능	150
	D [기술]	2015 6월 평가원모의 A형	152
	E [예술]	2015 수능 공통	154
15Day	A [인문]	2012 수능	156
	B [사회]	2015 9월 평가원모의 A형	158
	C [과학]	2014 9월 평가원모의 B형	160
	D [기술]	2014 6월 평가원모의 A형	162
	E [예술]	2016 9월 평가원모의 공통	164
16Day	A [인문]	2016 6월 평가원모의 A형	166
	B [사회]	2014 9월 평가원모의 공통	168
	C [과학]	2017 9월 평가원모의	170
	D [기술]	2017 6월 평가원모의	172
	E [예술]	2011 9월 평가원모의	174
17Day	A [인문]	2017 6월 평가원모의	176
	B [사회]	2014 6월 평가원모의 A형	178
	C [과학]	2014 수능 B형	180
	D [기술]	2016 수능 A형	182
	E [예술]	2010 9월 평가원모의	184
18Day	A [인문]	2016 수능 A형	186
	B [사회]	2017 9월 평가원모의	188
	C [과학]	2016 수능 A형	190
	D [기술]	2014 수능 A형	192
	E [예술]	2012 수능	194
19Day	A [인문]	2016 수능 B형	196
	B [사회]	2016 수능 공통	198
	C [과학]	2016 수능 B형	200
	D [기술]	2014 9월 평가원모의 A형	202
	E [예술]	2014 수능 A형	204
20Day 고난도 SPECIAL	A [사회]	2017 LEET 언어이해	206
	B [기술]	2015 LEET 언어이해	210
	C [예술]	2013 LEET 언어이해	214



## 1- A 훈련지침

★ 1단계 훈련 ★ 목표시간 내에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다!

제재	인문	출처	2015 9월 평가원모의 B형	난이도	하	목표시간	6분
지문독해 방식	이 지문은 맹자의 유학 사상, 그중에서도 '의' 사상에 대해 설명한 글이죠. 발문을 훑어보면 알겠지만, 이와 같이 개념이나 사상을 설명하는 지문이 나오면 중심 소재에 대해 세세하게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니까,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단별로 핵심을 찾아 체크해 가면서 독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 01~0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사상계가 양주(楊朱)와 묵자(墨翟)의 사상에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孟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孔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그는 공자의 춘추 시대(春秋時代)에 비해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안정을 위해 특히 '의(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2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었다.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仁)'의 실천에서 찾고,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를 제시하였다. 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자는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3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인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유비적 확장을 통해 '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나아가 그는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4 또한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하고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특히 작은 이익이건 천하의 큰 이익이건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면 천하는 필연적으로 상하 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이익의 추구는 '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5 맹자는 '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일종의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 6 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의 확충과 더불어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는 목숨과 '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



## Self 지문분석

★ 2단계 훈련 ★ 스스로 지문을 분석·요약해서 독해력을 키운다!

- 1 ㉠문단 : 공자 사상을 계승한 맹자는 사회의 혼란 가중되던 시대에 ( )의 중요성을 강조함
- 2 ㉡문단 : 공자는 사회 혼란 해결책으로 ( )을 강조했지만, '의'가 인을 실천함에 합리적 기준이 됨
- 3 ㉢문단 : 맹자의 '의'는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 )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 규범임
- 4 ㉣문단 : 맹자의 '의'는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 )의 추구를 배제
- 5 ㉤문단 : 맹자는 '의' 실현의 바탕은 ( )로 인간의 마음에는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다고 봄
- 6 ㉥문단 : 맹자의 '의'의 특징은 ( )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는 데 있음
- 7 전체주제 : [

### 지문 구조도 |

1 맹자의 '의' 사상 형성 배경
2 공자의 '의' 개념
↓ (계승·강화)
3 맹자의 '의'의 특징 ① : 필수 규범
4 맹자의 '의'의 특징 ② : 이익 배제
5 도덕 내재주의
↓ (바탕)
6 맹자의 '의' 특징 ③ : '의'의 실천의 중요성

##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③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 ④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 ⑤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02 윗글의 '맹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② '의'의 실천은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 ③ 가정 내에서 '인'과 더불어 '의'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의'의 의미 확장보다는 '인'의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⑤ 사회 규범으로서 '의'는 '인'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 03 ㉠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상의 올바른 이치가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으니, 수양을 통해 이것을 깨달으면 이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 ② 바른 도리를 행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하니, 분별에는 직분이 중요하고, 직분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가 필요하다.
- ③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난 성인들이 만든 것이지 인간의 성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 ④ 군자에게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어지러움을 일으키게 되고, 소인에게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남의 것을 훔치게 된다.
- ⑤ 저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어른으로 대우하는 것이지, 나에게 어른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 04 윗글의 '맹자'와 <보기>의 '목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목적'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개인 간의 갈등과 사회의 혼란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의'를 통해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면 '의'가 실현되어 사회의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의'의 실현이 만물을 주재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여 '의'를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 ① '맹자'와 '목적'은 모두 '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보았다.
- ② '맹자'는 '의'와 이익이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고, '목적'은 '의'와 이익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 ③ '맹자'는 이익의 추구를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목적'은 이익의 충족을 통해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맹자'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을 '의'를 실천하게 하는 동기로 보았고, '목적'은 '의'의 실천을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 ⑤ '맹자'는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고, '목적'은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 **문제풀이법**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지문 내용 + 서술 방식)를 찾고, 이를 지문에서 확인해 가며 푸세요.  
 ④ 재조명은 다시 조명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 **문제풀이법** 내용 일치 문제이니까, 먼저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고, 선택지의 키워드로 지문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 서로 일치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가며 푸세요.  
 ② 목숨과 이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④ '인'을 강조한 건 누구였죠?

● **문제풀이법** 선택지 진술이 길 때 꼼꼼히 읽지 않고 풀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 도덕 내재주의' 개념의 의미를 다시 확인해 보고, 그 특성에 일치하는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찾아 분석하고 푸세요.  
 ① 선한 마음이 어디에 깎여져 있다고요?  
 ④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념이 정확하게 뭐였죠?

● **문제풀이법** <보기>형 문제에서는 <보기>가 기준! 그리고 서로 다른 주장을 비교해 보는 문제이니까, 맹자가 주장한 '의' 사상이랑 <보기>에 나온 목적의 사상을 꼼꼼하게 비교해 가며 푸세요.  
 ② 사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이익의 추구가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고요?  
 ③ '목적'이 말한 '의'의 개념을 주목해 봐요.

Self 문제분석
★ 3단계 훈련 ★ 틀린 문제, 헷갈린 문제는 정답의 근거를 찾아 다시 풀고, 문제분석을 한다!
정답/문제분석 2쪽

문제풀 날	[ ]월 [ ]일	지문분석 / 훈련평가	[ ]월 [ ]일	목표시간 체크	[ ○ / × ]	점수 체크	[ ] / 9점
정오답 체크	01 (○ / × / △)	02 (○ / × / △)	03 (○ / × / △)	04 (○ / × / △)			
문제분석 훈련지침	1 틀린 문제는 ×, 감으로 맞힌 문제는 △ 표시하세요. 그리고 문제 오른쪽 '문제풀이법'을 보고 정답의 근거를 정확히 찾아가며 다시 푸세요. 이때는 자신의 생각과 문제풀이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답의 근거를 찾아 완벽하게 문제를 맞혔더라도 오답 선택지 중에 애매한 것이 없었는지 점검하세요. 2 그래도 또 틀렸다면 {문제분석식 해설}의 내용과 자신이 문제를 풀 과정을 비교하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점검하세요. 맞힌 문제라도 문제 유형에 따른 단계별 문제풀이법, 정답의 근거 찾기, 오답 선택지 분석까지 모두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문제분석을 해야만 국어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 5-㉠ 훈련지침

★ 1단계 훈련 ★ 목표시간 내에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다!

제재	사회	출처	2017 수능	난이도	상	목표시간	12분
지문독해 방식	지문이 길다는 것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보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긴 지문을 독해할 때에는 세세한 내용 하나하나 모두 다 기억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문단별 내용을 요약해 가면서 내용의 흐름을 파악해야 해요. [가] 부분과 같이 '○○가 크면 △△가 작다'라는 형태로 정보가 제시되면, 용어의 개념과 용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해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 01~0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2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

[가] 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3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도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4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5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6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Self 기문분석**

★ 2단계 훈련 ★ 스스로 지문을 분석·요약해서 독해력을 키운다!

- 1 1문단 : 보험은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 )를 내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가 ( )을 지급받는 조건부 상품임
- 2 2문단 : 공정한 보험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보험료와 ( )이 일치해야 하며,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 )해야 하고, 사고 발생 확률과 ( )이 일치해야 함
- 3 3문단 : 실제 보험사가 보험금과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 )의 원리를 따르지만,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사이의 ( ) 때문에, 보험사가 사고 발생 확률에 맞는 ( )를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4 4문단 :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 )인데,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 )을 보험사에 알려야 함. 이를 통해 보험사는 계약을 ( )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됨
- 5 5문단 :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 )을 행사하는데, 이는 사고 ( )유무와 관련 없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함. 계약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지급한 보험료의 ( )을 청구할 수 있음
- 6 6문단 : ( )는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 )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함으로써 보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함
- 7 전체주제 : [ ]

**| 지문 구조도 |**

1	보험의 개념
2	공정한 보험의 개념과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의 원리
3	현실에서 보험사의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의 원리와 문제점
4	고지 의무의 개념(해결책)
5	고지 의무 위반과 계약 해지권
6	고지 의무의 의의

**01**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
-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 **문제풀이법** 선택지를 분석해 본 다음, 지문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서술상의 특징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보세요. 이때 선택지 내용이 지문 전체의 특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 문단에만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02** 위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 **문제풀이법** 내용 일치 문제니까, 먼저 선택지의 핵심을 확인하고, 선택지의 키워드로 지문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 지문 내용과 일치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가며 푸세요.

03 [가]를 바탕으로(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 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뻐함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뻐함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뻐함은 서로 같다.

● 문제풀이법 [가]의 각 용어들과 그 관계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분석해야 해요. 각 선택지를 조건과 추론 결과(핵심 포인트)로 분석해 본 다음,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 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세요. 이때 판단의 근거는 여러분들의 상식이나 판단이 아니라, [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②, ⑤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기뻐함의 관계는?
- ④ [가]에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를 찾으세요.

04 위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문제풀이법 지문의 중심 화제인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은 ③~⑤ 문단에 걸쳐 제시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고, 지문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확인한 다음, 그 적절성을 판단해 보세요.

05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문제풀이법 <보기>의 사례를 분석해 본 다음, 선택지를 조건과 추론 결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세요. 그리고 선택지의 조건과 관련된 지문 내용을 찾아서 그 적절성을 판단해 보세요.

- ③ 계약 체결 시 A와 B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관련되는 내용은 지문의 어디에?
- ④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에 주목해야 해요.

06 @~㉔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② ㉔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㉔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④ ㉔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⑤ ㉔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 **문제풀이법** 우선 지문의 문맥을 고려하면서 ㉔~㉔ 각각의 의미를 확인한 다음, 각 선택지의 문장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Self 문제분석

★ 3단계 훈련 ★ 틀린 문제, 헷갈린 문제는 정답의 근거를 찾아 다시 풀고, 문제분석을 한다

정답/문제분석 51쪽

문제문 날	[ ]월 [ ]일	지문분석 / 훈련평가	[ ]월 [ ]일	목표시간 체크	[ ○ / × ]	점수 체크	[ ] / 13점
정오답 체크	01 (○ / × / △)	02 (○ / × / △)	03 (○ / × / △)	04 (○ / × / △)	05 (○ / × / △)	06 (○ / × / △)	
문제분석 훈련지침	1 틀린 문제는 ×, 감으로 맞힌 문제는 △ 표시하세요. 그리고 문제 오른쪽 '문제풀이법'을 보고 정답의 근거를 정확히 찾아가며 다시 푸세요. 이때는 자신의 생각과 문제풀이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답의 근거를 찾아 완벽하게 문제를 맞혔더라도 오답 선택지 중에 애매한 것이 없었는지 점검하세요. 2 그래도 또 틀렸다면 {문제분석식 해설}의 내용과 자신이 문제를 풀 과정을 비교하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점검하세요. 맞힌 문제라도 문제 유형에 따른 단계별 문제풀이법, 정답의 근거 찾기, 오답 선택지 분석까지 모두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문제분석을 해야만 국어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고난도\_긴 지문/신유형 훈련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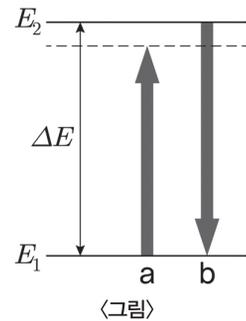
작년 2017학년도 수능 국어, 그중에서도 특히 비문학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이전 수능 국어 시험에서 비문학은 대체로 지문 4개 정도에 문항 수는 15개 정도였는데, 2017학년도 시험에서는 문항 수는 그대로였지만 지문이 3개로 줄었어요. 이전 수능 비문학이 100m 달리기를 네 번 한 거였다면,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200m, 400m, 800m 달리기로 종목이 바뀐 거죠. 특히 800m 달리기에 해당하는 지문으로는 긴 길이에, 고난도에, 많은 문제 수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새로운 지문이 하나 출제됐어요. 이런 지문에 대비한 훈련을 하기 위해 이번 05Day에는 2017학년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에 출제되었던 고난도, 긴 지문들만 모아 두었어요. 이 지문들의 특징은 지문의 길이가 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두 가지 영역의 내용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데다가, 특정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지문들에 딸린 문항은 각각 6문제인데, 세 지문 다 마지막 문제는 어휘 관련 문제라서, 실제 독해력을 평가하는 문제는 5문제예요.

05Day를 공부할 때에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해요. 지문을 읽을 때에는 2~3문단마다 읽기를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한 후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중요하다 싶은 내용에는 반드시 흔적(표시)을 남겨 두세요. 특히 어떤 원리를 설명하거나, 비례 관계를 설명하거나, 단계적으로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은 반드시 문제로 출제되니까, 차근차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려 노력해야 해요. 문제를 풀 때에는 절대로 기억에 의존해서, 또는 지문과 상관없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정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돼요. 길고 복잡한 지문이지만, 선택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지문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때 앞서 지문을 읽으며 남겨 두었던 흔적이 근거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중력을 발휘하는 훈련을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제재	과학	출처	2016 keet 언어이해	난이도	최상	목표시간	15분
지문독해 방식	중심 화제인 레이저 냉각의 원리와 과정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는 지문이에요. 낯선 용어가 여럿 제시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개념 간의 관계도 복잡하므로 적극적으로 추론하면서 능동적으로 독해해야 해요. 특히 그림은 내용 이해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문을 이해해야 해요.						

**13~18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는  $-273.16^{\circ}\text{C}$ 이며 이를 절대 온도 0K라고 한다. 실제로 0K까지 물체의 온도를 낮출 수는 없지만 그에 근접한 온도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레이저 냉각'이다.
- 2 레이저 냉각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온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미시적으로 물질을 들여다보면 많은 수의 원자가 모인 집단에서 원자들은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며 다양한 속도로 운동한다. 이때 절대 온도는 원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어떤 원자의 집단에서 원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를 감소시키면 그 원자 집단의 온도가 내려간다. 레이저 냉각을 사용하면 상온(약 300K)에서 대략 200m/s의 평균 운동 속도를 갖는 기체 상태의 루비듐 원자의 평균 운동 속도를 원래의 약 1/10000까지 낮출 수 있다.
- 3 그렇다면 레이저를 이용하여 어떻게 원자의 운동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까? 날아오는 농구공에 정면으로 야구공을 던져서 부딪치게 하면 농구공의 속도가 느려진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움직이는 원자에 레이저 빛을 쏘아 충돌시키면 원자의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때 속도와 질량의 곱에 해당하는 운동량도 작아진다. 빛은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광자라는 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운동량을 갖는다. 광자는 빛의 파장에 반비례하는 운동량을 가지며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다. 또한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레이저 빛은 햇빛과 같은 일반적인 빛과 달리 일정한 진동수의 광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레이저 빛을 구성하는 광자가 원자에 흡수될 때 광자의 에너지만큼 원자의 내부 에너지가 커지면서 광자의 운동량이 원자에 전달된다. 실제로 상온에서 200m/s의 속도로 다가오는 루비듐 원자에 레이저 빛을 쏘아 여러 개의 광자를 연이어 루비듐 원자에 충돌시키면 원자를 거의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문제는 원자가 정지한 순간 레이저를 끄지 않으면 원자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원자를 하나하나 따로 관측할 수 없고 각 원자의 운동 속도에 맞추어 각 원자와 충돌하는 광자의 운동량을 따로 제어할 수도 없으므로 실제 레이저를 이용해 원자의 온도를 내리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이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도플러 효과와 원자가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 4 사이렌과 관측자가 가까워질 때에는 사이렌 소리가 원래의 소리보다 더 높은 음으로 들리고, 사이렌과 관측자가 멀어질 때에는 더 낮은 음으로 들린다. 이처럼 빛이나 소리와 같은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동원과 관측자가 멀어질 때는 파동의 진동수가 더 작게 감지되고, 파동원과 관측자가 가까워질 때는 파동의 진동수가 더 크게 감지되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 이때 원래의 진동수와 감지되는 진동수의 차이는 파동원과 관측자가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에 비례한다. 이것을 레이저와 원자에 적용하면 레이저 광원은 파동원이고 원자는 관측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레이저 광원에 다가가는 원자에게 레이저 빛의 진동수는 원래의 진동수보다 더 높게 감지되고, 레이저 광원에서 멀어지는 원자에게 레이저 빛의 진동수는 더 낮게 감지된다.
- 5 한편 정지해 있는 특정한 원자는 모든 진동수의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한 진동수, 즉 공명 진동수의 빛만을 흡수한다. 이것은 원자가 광자를 흡수할 때 원자 내부의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  $E_1$ 에서 그보다 더 높은 특정 에너지 준위  $E_2$ 로 옮겨가는 것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는 두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값의 차이  $\Delta E$ 에 해당한다.
- 6 그러면 어떻게 ㉠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레이저 냉각을 수행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어떤 원자의 집단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레이저 빛을 원자에 쏘되 그 진동수를 원자의 공명 진동수보다 작게 한다. 원자가 한쪽 레이저 빛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 원자에서 감지되는 레이저 빛의 진동수가 커지는데, 그 값이 자신의 공명 진동수에 해당하는 원자는 레이저 빛을 흡수하게 된다. 이때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는  $\Delta E$ 보다 작지만(그림의 a), 원자는 도플러 효과 때문에 공명 진동수를 갖는 광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낮은 준위  $E_1$ 에 있던 전자를 허용된 준위  $E_2$ 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불안정해진 원자는 잠시 후에  $\Delta E$ 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하면서 전자를  $E_2$ 에서  $E_1$ 로 내려놓는다(그림의 b). 이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원자가 광자를 흡수할 때에는 일정한 방향에서 오는 광자와 부딪쳐 원자의 운동 속도가 계속 줄어들지만, 원자가 광자를 내 놓을 때에는 임의의 방향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결국 광자의 방출은 원자의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자에서 광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원자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원자의 평균 운동 속도가 줄고 그에 따라 원자 집단 전체의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 1 1문단 :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를 ( )라고 하는데, 그에 근접한 온도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 )임
- 2 2문단 : 절대 온도는 원자들의 평균 ( )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므로,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를 낮추면 그 물질의 ( )가 내려감
- 3 3문단 : 레이저 빛을 원자에 쏘면 원자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 )이 작아지는데, 이때 광자의 운동량은 빛의 파장에 ( )하고, 진동수에 ( )하며,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 ) 관계임. 실제 레이저 냉각을 할 때에는 ( )와 원자가 빛을 ( )으로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함
- 4 4문단 : 도플러 효과는 파동원과 관측자가 멀어질 때 파동의 진동수가 실제보다 더 ( ) 감지되고, 가까워질 때 더 ( ) 감지되는 현상으로, 이를 레이저와 원자에 적용할 때 레이저 광원은 ( )이 되고, 원자는 ( )가 됨
- 5 5문단 : 정지해 있는 특정한 원자는 고유한 진동수, 즉 ( )의 빛만 흡수함
- 6 6문단 : 실제 레이저 냉각을 할 때, 레이저 빛의 진동수를 원자의 공명 진동수보다 ( ) 설정한 다음, 원자가 한쪽 레이저 빛 방향으로 이동하면 ( )가 일어남. 그러면 원자는 <그림>의 (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그림>의 (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자의 ( )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원자의 평균 운동 속도가 줄어들면서 물질의 ( )가 내려감
- 7 전체주제 : [ ]

지문 구조도

1 레이저 냉각
2 절대 온도와 레이저 냉각의 개념
3 레이저 냉각의 원리와 문제점
4 문제 해결 방법 ① : 도플러 효과
5 문제 해결 방법 ② : 원자의 선택적 빛 흡수(공명 진동수)
6 실제 레이저 냉각의 수행 과정과 원리

13 읽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움직이는 원자의 속도는 도플러 효과로 인해 더 크게 감지된다.
- ② 레이저 냉각은 광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원자의 성질을 이용한다.
- ③ 레이저 냉각은 원자와 레이저 빛을 충돌시켜 광자를 냉각시키는 것이다.
- ④ 레이저 빛을 이용하여 원자 집단을 절대 온도 0K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 ⑤ 개별 원자의 운동 상태를 파악하여 각각의 원자마다 적절한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쏠 수 있다.

● **문제풀이법** 내용 일치 문제니까, 먼저 선택지의 핵심을 확인하고, 선택지의 키워드로 지문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 지문 내용과 일치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가며 푸세요.

14 읽기의 <그림>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가오는 원자에 공명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쏘면 원자 내부의 전자가 E<sub>1</sub>에서 E<sub>2</sub>로 이동한다.
- ② 원자의 공명 진동수와 일치하는 진동수를 갖는 광자는 ΔE의 에너지를 갖는다.
- ③ 원자가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ΔE로 일정하다.
- ④ 정지한 원자가 흡수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ΔE와 일치한다.
- ⑤ E<sub>2</sub>에서 E<sub>1</sub>로 전자가 이동할 때 광자가 방출된다.

● **문제풀이법** 선택지의 핵심을 먼저 분석한 다음, 해당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지문에서 찾고, 이를 근거로 적절성을 판단해 보세요.  
 ① 다가오는 원자에 유의하세요.  
 ③ 주어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17 윗글에 비추어 <보기>의 리튬 원자의 레이저 냉각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루비듦	리튬
원자량(원자의 질량)	85,47	6,94
정지 상태에서 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	780nm	670nm

- ① 리튬의 공명 진동수는 루비듦의 공명 진동수보다 크다.
- ② 원자가 흡수하는 광자의 운동량은 리튬 원자가 루비듦 원자보다 작다.
- ③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리튬 원자의 운동량이 루비듦 원자의 운동량보다 작다.
- ④ 루비듦 원자에 레이저 냉각을 일으키는 레이저 빛은 같은 속도의 리튬 원자에서는 냉각 효과가 없다.
- ⑤ 리튬 원자에 레이저 냉각을 일으킬 때에는 레이저 빛의 파장을 670nm보다 더 큰 값으로 조정한다.

● **문제풀이법**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표를 분석 및 판단해 본 다음,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고 그 적절성을 하나씩 판단해 보세요.  
 ② 광자의 운동량과 비례 / 반비례 관계에 있는 대량인?  
 ⑤ 빛의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는?

추가훈련\_新문제

1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투사(透射)하여
- ② 반사(反射)하여
- ③ 입사(入射)하여
- ④ 조사(照射)하여
- ⑤ 방사(放射)하여

● **문제풀이법** 문맥을 통해 ㉠의 의미를 확인하고, 선택지의 단어들과 바꿔 쓸 수 있는지 하나씩 판단해 보세요.



Self 문제분서

★ 3단계 훈련 ★ 틀린 문제, 헷갈린 문제는 정답의 근거를 찾아 다시 풀고, 문제분석을 한다!

정답/문제분석 155쪽

문제풀 날	[ ]월 [ ]일	지문분석 / 훈련평가	[ ]월 [ ]일	목표시간 체크	[ ○ / × ]	점수 체크	[ ] / 13점
정오답 체크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문제분석 훈련지침	1 틀린 문제는 ×, 감으로 맞힌 문제는 △ 표시하세요. 그리고 문제 오른쪽 '문제풀이법'을 보고 정답의 근거를 정확히 찾아가며 다시 푸세요. 이때는 자신의 생각과 문제풀이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답의 근거를 찾아 완벽하게 문제를 맞혔더라도 오답 선택지 중에 애매한 것이 없었는지 점검하세요. 2 그래도 또 틀렸다면 {문제분석식 해설}의 내용과 자신이 문제를 풀 과정을 비교하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점검하세요. 맞힌 문제라도 문제 유형에 따른 단계별 문제풀이법, 정답의 근거 찾기, 오답 선택지 분석까지 모두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문제분석을 해야만 국어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2018 수능 완벽 대비}  
고난도 「긴 지문/신유형」 강화

# 후려도감 긴 지문 비무한 긴 기

문제분석식 해설

썬티북스



Self 지문분석

**[정답]** ① 의 ② 인 ③ 조화 ④ 이익 ⑤ 도덕 내재주의 ⑥ 실천 ⑦ 맹자의 '의' 사상

● 실천적 지문독해

①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사상계가 양주(楊朱)와 묵자(墨翟)의 사상에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孟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孔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그는 공자의 춘추 시대(春秋時代)에 비해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안정을 위해 특히 '의(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내용독해]** 전국 시대 때 사상가들이 '양주, 묵자' 사상에 빠져서 유학이 예전만큼 힘이 없어지니까, 맹자가 유학을 지키겠다고 나섰어요. 이 내용은 맹자 사상의 형성 배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유학 사상을 이론화했거든요. 또 춘추 시대 때보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졌다고 생각하고 '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구요.

**[구조독해]** 첫 문단을 읽을 때에는 글 전체의 중심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생각해 봐야 해요. 이 지문의 경우, 일단 '맹자'와 '의'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라는 말은 글쓴이가 강조할 때 쓰는 거니까,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해요.

②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었다.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仁)의 실천에서 찾고, '인의 실천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를 제시하였다. 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자는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내용독해]** 원래 공자가 말했던 '의' 개념을 강화한 것이 맹자의 '의' 개념이에요. 일단 공자는 사회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인'의 실천을 얘기했고, 그 인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객관적인 규칙 같은 것을 의라고 봤어요. 공자는 도덕 감정인 인을 확산시키면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어요. 또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이고 그 기준이 바로 '정당함'이라고 말했거든요. 의는 인을 위해 필요한 규칙이고 기준이라는 것이군요!

**[구조독해]** 이 문단의 첫 문장은 다음 문단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문장이예요. 이 문단의 내용은 공자 얘기밖에 없죠? 공자의 '인'과 '의'를 설명한 것은 다음 문단에서 맹자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 전제를 깔아 준 것에 해당하거든요. 이러한 논리적인 관계를 알려 주는 것이 바로 첫 문장이예요.

③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인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유비적 확장을 통해 '의'를 (사회 일반의 행의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나아가 그는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내용독해]** 인을 강조하긴 했는데 의를 인이랑 동등한 지위로 만들었고, 의를 가족 간에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고 봤네요. 일단 우리 가족인 형부터 공경하다가 남의 어른도 공경하는 방식으로 의를 사회 전체의 규범으로 확장시켰어요. 의로 개인도 완성하고 개인이랑 사회랑 조화도 시키고! 개인은 의를 실천해서 사회의 질서를 만들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군요.

**[구조독해]** 맹자의 '의' 개념이 이제 나오네요. 그런데 앞 문단에서 공자의 '의' 사상을 설명했고, 이 문단에서도 공자의 '의' 개념을 맹자가 어떻게 계승 발전했는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또 맹자의 '의'의 개념과 특징을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열된 정보를 읽을 때에는 위에서처럼 괄호를 치면서 정리해 가며 읽으면 좋아요.

	공자	맹자
차이점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합리적 기준으로서의 정당함)	'인'과 대등한 지위를 가짐. 가족 및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

④ 또한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하고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특히 작은 이익이건 천하의 큰 이익이건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면 천하는 필연으로 상하 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이익의 추구는 '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내용독해]** 의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익 추구는 사적인 거고, 의를 실천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상하 간에 지켜야 하는 질서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거군요. 결국 의랑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네요.

**[구조독해]** 이 문단은 '또한'이라는 접속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은 주로 앞 내용과 대등한 관계의 정보를 나열할 때 사용하거든요. 앞에서 맹자의 '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였으니까, 이 문단은 그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맹자의 '의'의 특징 두 번째를 서술하고 있다고 예측하고 독해를 하면 좋아요. 또한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래서'라는 인과 관계를 의미하는 접속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 마지막 문장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⑤ 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해 인간에게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는 일종의 ①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하여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내용독해]** 사람은 마음속에 원래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이걸 '도덕 내재주의'라고 했군요. 도덕 내재주의는 몰라도 이 개념은 어디서 많이 들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요. 맹자의 '성선설'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죠? 이렇게 사람은 원래 착한 마음이 있어서 '의'를 실천하게 되고 나쁜 짓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모두 '의'를 실천할 수 있겠네요?

**[구조독해]** 도덕 내재주의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어떤 개념을 정의한 것이 나오면 반드시 밑줄을 긋고 그 내용을 중요하게 잘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이 문단의 내용은 맹자의 '의'의 개념이나 특징은 아니지요? 이렇게 앞 문단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 갑자기 나올 때에는 '다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야 해요. 실제 이 문단은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제가 돼요.

⑥ 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의 확충과 더불어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는 목숨과 '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

**[내용독해]** '의'를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착한 마음은 키우고, 욕망은 절제하고,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일에서도 의는 실천해야 하고, 목숨보다 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구조독해]** 첫 문장을 보세요. 앞 문단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거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 '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지요. 몇 가지? 네 가지죠. 결국 마지막 문단은 '맹자의 '의' 사상 ③'인 것이죠.

**01 정답의 근거찾기** 글의 서술상 특징을 내용과 결부시켜 묻는 문제군  
 요. 이 유형의 문제를 풀 때에는 '지문의 내용 + 서술 방식'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해요. 따라서 1단계 : 각 선택지를 '지문 내용 + 서술 방식'으  
 로 구분하여 분석한 뒤, 2단계 : 해당 내용이 있는 문단을 찾아보고, 3단계  
 : 각 선택지의 서술 방식이 해당 문단에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풀어야 해요.

⑤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과 내용에 대해(내용) / 설명하고 있다.(서술 방식) (○)  
 우선 1단계 : 이 선택지는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내용) + '설명하고  
 있다(서술 방식)'의 구조로 되어 있군요. 2단계 :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  
 경은 [1]문단에서, 맹자의 '의' 사상의 내용은 [2]~[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  
 어요. 다음 3단계 : [1]문단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이나 [2]~[6]문단의 '의'  
 사상의 내용을 훑어보면 각각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독자를 이해시  
 키려는 '설명'의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⑤가  
 '적절한' 설명이므로 정답이 되겠네요.

**오답\_선택지분석**

①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 선택지의 구조가  
 '사회적 통념(내용) + 비판(서술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사회  
 적 통념이 뭘까요? 어떤 대상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의  
 미해요. 그렇다면 지문에서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  
 각을 설명한 부분도 있어야 하고, 이를 비판하는 서술 방식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지문에는 없어요.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아요.

②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 선택지의 구조가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내용) + 분석(서술 방식)'으로 되어 있군요.  
 이 지문 어디에도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③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 (○) 선택지의 구조가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들(내용) + 비교(서술 방식)'으로 되어  
 있군요. 역시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들과 같은 내용은 지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④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 (○) 선택지의 구조  
 가 '맹자의 '의' 사상의 의미(내용) + 재조명(서술 방식)'으로 되어 있군요. 그  
 런데 여기서 '의의'란 의미와 가치를 말해요. 그리고 '재조명'이란 다시 밝힌  
 다는 뜻인데, 재조명하려면 우선 조명한(밝힌) 내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  
 겠죠? 누군가 밝힌 것을 다시 좀 다르게 밝히는 것이 재조명이니까요. 그런  
 데 이 지문에서는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지도 않았고, 더군  
 다나 그것을 재조명하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도 않아요.

**02 정답의 근거찾기** 중심 화제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 문제이지만, 사  
 실상 내용 일치 문제예요. 이 내용 일치 유형은 앞으로 엄청 많이 나  
 오는데, 이것은 3단계로 푸는 게 좋아요. 우선 1단계 : 각 선택지를 분석하  
 고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선택지의 주어-서술어 관계를 확  
 인하거나 선택지 문장의 특징을 파악해서 내가 판단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  
 지 명확하게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 2단계 : 선택지에서 키워드를 정해서  
 지문의 해당 내용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때 키워드는 선택지에서 '가장 특  
 징적인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의 주어' 등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3단계 :  
 그 내용이 맞는지를 지문과 대응시켜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기억이 분  
 명하게 난다면 굳이 지문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 확신  
 이 들지 않는다면 지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가며 정확히 풀어야 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 풀면 ④가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라 정답이 됩니다.

④ '의'의 의미 확장보다는 / '인'의 확신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  
 1단계 : 이 선택지는 '~보다는 / ~이 더 필요하다'라는 비교 구조로 되어 있  
 고, 판단의 핵심 포인트는 "인'의 확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2단계 : '인'

의 확신을 키워드로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 [3]문단의 첫째 줄 '맹자는 ~ '인'  
 의 확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동등  
 한 지위로 격상하였다.'라고 설명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3단계 : 지문 내  
 용을 근거로 볼 때, 맹자는 '의'의 의미의 확장보다 '인'의 확신이 더 필요하  
 다고 본 것이 아니라,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④의 내용은 지문 내용과 모순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됩니다.

**오답\_선택지분석**

①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 선택지 판단의 핵  
 심 포인트는 '일상생활에서 '의'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상 생활'을  
 키워드로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 [6]문단의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  
 (즉 일상 생활)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볼 때 ①은 맹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이죠.

② '의'의 실천은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 (○) 선택지의 주어는  
 '의'의 실천이고 판단의 핵심은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목숨을 바칠'을 키워드로 해당 내용을 찾으면 [6]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의'  
 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②와 싱크로율 100%이군요.

③ 가정 내에서 '인'과 더불어 '의'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 (○) 선택지 판단의  
 핵심 포인트는 '가정 내에서 인과 더불어 의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  
 정', '인', '의'를 키워드로 해당 내용을 찾으면 [3]문단에서 '부모에게 효도하  
 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볼 때  
 ③의 내용은 적절해요.

⑤ 사회 규범으로서 '의'는 '인'과 대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 (○) 선택지 판단  
 의 핵심 포인트는 '사회 규범으로서의 '의'가 '인'과 대등한 지위'라는 것이에  
 요. '사회 규범'을 키워드로 관련 내용을 찾으면 [3]문단에서 "'의'를 '인'과 동  
 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라는 내용과 "'의'를 사회 일반 행위의 규범으로 정  
 립하였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두 내용을 종합하면 ⑤의 내용이 적  
 절함을 판단할 수 있어요.

**03 정답의 근거찾기** 지문의 핵심 정보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가를 묻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1단계 :  
 ①의 개념을 지문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2단계 :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한 뒤, 3단계 : 지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으로 적  
 절한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1단계 : ① '도덕 내재주의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쉽게 말하면 도덕  
 내재주의란 사람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착한 마음  
 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 본 것 같죠? 그래요, 이게 맹자의 '성  
 선설'과 관련이 돼요.

다음으로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여 그 적절성을 판단해 보면 ①  
 이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문제의 발문에서 ①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1단계에서 분석한 내용과 공통점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찾으면 되  
 는 거죠.

① 세상의 올바른 이치가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으니.(근거) / 수양을 통해 이  
 것을 깨달으면 이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결론) (○)

2단계 : 선택지 ①은 '~ 있으니 / ~ 없다'라는 '근거-결론'의 구조로 되어  
 있고, 판단의 핵심 포인트는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으니'예요. 그리고  
 3단계 : 지문을 바탕으로 볼 때, 도덕 내재주의의 정의가 '누구나 도덕 행위  
 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거였죠? 세  
 상의 올바른 이치가 '도덕'이 되겠고, 내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말은 '나의 마음  
 속에 갖추어져 있으니'랑 바로 대응되겠네요. 그래서 ①은 '도덕 내재주의'  
 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답\_선택지분석**

- ② 바른 도리를 행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하니, / **분별**에는 **직분**이 중요하고, / **직분**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가 필요**하다. (x) Ⓛ 선택지 판단의 핵심 포인트는 바른 도리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분별 → 직분 → 의'의 순서로 **연쇄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별, 직분, 의'의 개념은 도덕 내재주의와 관련이 없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아요.
- ③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은 /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난 성인들이 만든 것이지** / **인간의 성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x) Ⓛ 선택지의 주어는 '도덕'이고, '도덕은 / ~ 만든 것이지 / ~이 아니다'라는 대조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판단의 핵심 포인트는 '인간의 성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진 도덕 내재주의의 개념과 정반대로 서술한 내용이군요. ③은 도덕 내재주의를 부정하고, 도덕은 성인들이 만든 것이라고 한 거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 ④ **군자에게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 어지러움을 일으키게 되고, / 소인에게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 남의 것을 훔치게 된다**. (x) Ⓛ 선택지의 구조는 '군자에게 ~면 / ~게 되고, / 소인에게 ~면 / ~게 된다'라는 대조의 구조인데, 이 의미가 곧 선택지 판단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④는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대조의 구조로 강조하고 있군요. 즉 군자든 소인이든 상관없이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니까 의로움도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진 '의'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다는 도덕 내재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 ⑤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이유) / **내가 그를 어른으로 대우하는 것이지**,(결과) / **나에게 어른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부정하는 이유) (x) Ⓛ 선택지의 구조는 '이유-결과-부정하는 이유'의 구조로 되어 있고, 선택지의 핵심은 '내가 그를 어른으로 대우하는 이유'이군요. 그런데 ⑤의 내용은 도덕 내재주의와 관련이 없어요. 한편 '그를 어른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마음'을 '도덕적인 선한 마음'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⑤는 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도덕 내재주의와는 관련이 없어요.

**04 정답의 근거찾기** 지문에서 설명한 대상 <보기>의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의 풀이 과정은 1단계 : <보기>를 분석하면서 지문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판단하고, 2단계 :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한 뒤, 3단계 : 지문과 <보기>를 바탕으로 선택지의 내용이 공통점 및 차이점으로 적절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풀면 돼요. 1단계 : 먼저 <보기>를 분석해 볼까요?

<보기>

'목적'은 ①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②자기 자신과 자기집단만 **맹자가 인간이 착하다고 한 거랑 반대죠?** 의 이익을 추구하여 개인 간의 갈등과 사회의 혼란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 목적이 생각하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예요. ③'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의'를 통해 **목적이 생각하는 '의'의 개념이죠? 맹자랑 다르죠?**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면 '의'가 실현되어 사회의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④'의'의 실천이 만물을 주재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여 '의'를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목적은 '의'를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동기)을 뭐라고 했죠? 하늘의 뜻이예요.**

이제 이 내용을 지문의 맹자와 비교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목적(보기)	맹자(지문)	비고
(1) 인간?	이기적인 존재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	차이점
(2) 혼란의 원인	인간이 자신과 자기 집단의 이익 추구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 ③)	공통점
(3) '의'의 개념 및 필요성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의'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음.(→ ③)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	차이점 (→ ①, ⑤)

(4) '의' 실천의 동기	'의'의 실천은 하늘의 뜻이므로, 당위성이 있음.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	차이점 (→ ④)
----------------	-----------------------------	----------------	-----------

이를 바탕으로 각 선택지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적절성을 판단해 보면 ②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라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어요.

② '맹자'는 '의'와 이익이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고, / '목적'은 '의'와 이익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x)

2단계 : 선택지는 '맹자'와 '목적'의 차이점을 제시하는 대조의 구조로 되어 있고, 판단의 핵심 포인트는 '맹자의 '의'와 이익 관련, 목자의 '의'와 이익의 구분'이에요. 3단계 : ④문단에서 '맹자'는 '의'를 이익의 추구하고 구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고, <보기>에서 '목적'은 '의'가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②는 '맹자'와 '목적'의 견해를 뒤바꾸어 정반대로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이렇게 두 학자의 서로 다른 견해를 비교하게 만드는 문제의 정답을 만드는 원리가 이런 거예요. 서로의 견해를 뒤바꾸어서 정반대로 제시하는 거죠.

**오답\_선택지분석**

- ① '맹자'와 '목적'은 모두 '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 **그 의미를 다르게 보았다**. (o) Ⓛ 선택지는 '맹자'와 '목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제시한 구조로, "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의미를 다르게 보았다"가 판단의 핵심 포인트예요. 1단계의 분석표의 (3) 항목을 보면 둘 다 '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르게 봤죠.
- ③ '맹자'는 이익의 추구를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 '목적'은 이익의 충족을 통해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o) Ⓛ 선택지는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고, '이익 추구(충족)과 사회 혼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판단의 핵심 포인트예요. 1단계 분석표 (2)번 항목과 ④문단에서 맹자가 이익 추구를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단계 분석표 (3)번 항목과 <보기> 두 번째 줄에서 목적이 이익의 충족을 통해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④ '맹자'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을 '의'를 실천하게 하는 동기로 보았고, / '목적'은 '의'의 실천을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o) Ⓛ 선택지는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고, '의'의 실천에 대한 두 학자의 생각 차이가 판단의 핵심 포인트예요. 1단계 분석표 (4)번 항목과 ⑤문단을 통해 맹자가 수치심을 '의'의 실천 동기로 보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단계 분석표 (4)번 항목과 <보기>의 마지막 줄에서 목적이 '의'의 실천을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 ⑤ '맹자'는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고, / '목적'은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o) Ⓛ 선택지는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고, '의'의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두 학자의 생각의 차이가 선택지 판단의 핵심 포인트예요. 1단계 분석표 (3)번 항목과 ③문단을 통해, 맹자가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단계 분석표 (3)번 항목과 <보기>의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목적은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 것을 알 수 있어요.

**1-B 사회 / 05-07**

05 ①    06 ④    07 ⑤

**Self 지문분석**

**정답** | ① 능률성, 지역 주민 ② 민간화, 경영화 ③ 주민 참여 제도 ④ 직접 민주주의 ⑤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지방 자치 단체의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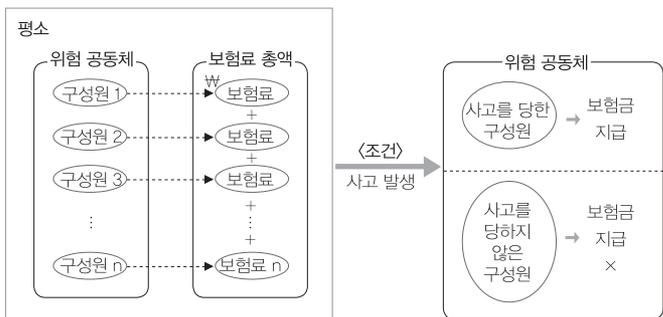
Self 지문분석

**정답** | ① 보험료, 보험금 ②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일치, 보험료율 ③ 공정한 보험, 정보의 비대칭성, 보험료 ④ 고지 의무, 중요한 사항, 승낙 ⑤ 계약 해지권, 발생, 반환 ⑥ 고지 의무, 전가 ⑦ 보험 계약에 있어서의 고지 의무와 계약 해지권

실전적 지문독해

①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④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내용독해** | ㉠문단의 중심 내용은 '보험의 개념'이에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보험에서 '보험료'는 가입자가 내는 돈, '보험금'은 받는 돈, 그리고 보험금은 사고 발생이라는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에만 지급받는 조건부 상품이라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구조독해** | ㉠문단은 '보험의 정의-장점-성격'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문단에서 '보험의 개념'을 제시했으니까, 지문 전체의 중심 화제는 '보험'이 될 것이고, 다음 문단부터는 보험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제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②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 [가] 는 ①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③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내용독해** | ㉡문단의 중심 내용은 '공정한 보험에서의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의 원리'예요. 우선 '보험금'과 '보험료'의 개념을 분명하게 짚고 난 다음, 다른 개념들을 이

해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꽤나 아프게 될 거예요. 사고 발생 확률에 따라 보험금과 보험료가 결정되는 거군요. 그 다음 중요한 키워드로 '공정한 보험'이 제시된 것에 유의해서 독해를 해야 해요. 보험료를 더 내고도 보험금을 덜 받거나, 보험료를 덜 내고도 보험금을 더 받는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겠죠? 공정한 보험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원리는 세 가지예요. ① **보험료=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② **보험료 총액=보험금 총액**, ③ **보험료율=사고 발생 확률**이군요. 여기서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사고 발생 확률 × 수령할 보험금'이고, **보험료율**은 '보험료 ÷ 보험금'이군요.

예를 들어 위험 공동체 구성원이 100명, 사고 발생 확률이 0.1(10%), 보험금이 1억 원, 보험료가 1천만 원인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 발생 확률 0.1에 보험금 1억 원을 곱한 값인 1천만 원이 되는군요. 즉, **보험료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같으므로 공정한 보험에 해당해요**(①). 그리고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100명이므로, 전체 보험료 총액은 10억 원이에요. 사고 발생 확률이 10%라는 건 전체 구성원 100명 중 10명이 사고를 당한다는 거니까, 전체 보험금 총액은 10억 원이에요. 사고를 당한 10명이 1억 원씩 받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 보험은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하는 공정한 보험인 거죠**(②). 또한 이 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료 1천만 원 ÷ 보험금 1억 원'이므로 이 역시 사고 발생 확률과 같으므로 공정한 보험이 되는 거죠(③). 그런데 만일 보험료가 2천만 원이라면, 보험료율이 0.2가 되며 보험료 총액이 20억 원이 되는데, 이때에는 보험금 총액 10억 원보다 많아지는 거죠. 반대로 보험료가 5백만 원이라면, 보험료율이 0.05가 되며 보험료 총액이 5억 원이 되는데, 이때에는 보험금 총액 10억 원보다 적어지는 거예요.

**구조독해** | ㉡문단은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의 원리-공정한 보험에서의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의 원리'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정한 보험에서의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과 '보험료율'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함께 제시했군요. 그러니까 특정 원리를 설명하면서 중간에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서 독해를 해야 해요. 한편 ㉡문단에서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으므로, 다음 문단에서는 현실에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어요.

③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④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내용독해** | ㉢문단의 중심 내용은 '실제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에요. 현실에서 보험사들은 공정한 보험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야 해요. 그건 보험 가입자들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사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미 암에 걸린 환자가 자신의 병을 속이고 암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금을 타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급한 보험금 총액은 증가할 텐데 보험사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할 테니 증가한 보험금만큼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의 위험 정도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 정보는 가입자만이 알 뿐 보험사는 알 수 없죠.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구조독해** | ㉢문단은 '현실에서 보험사의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의 원리-보험사의 보험료 책정의 어려움-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는 문제와 그 이유-문제 해결 방안'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문단에서 보험금과 보험료 산정의 이상적인 원리를 제시했다면, ㉢문단에서는 현실에서 보험사가 보험금과 보험료를 산정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단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

로 서술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음 ㉔문단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4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내용독해** ㉔문단의 중심 내용은 '고지 의무의 개념과 역할'이에요. 고지 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 즉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된 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㉓문단에서 설명한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청약을 승낙할지 말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를 얼마로 책정할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 의무는 공정한 보험이 되는 조건이 되는 동시에 보험 가입 동기를 부여하는(보험 가입 동기 상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구조독해** ㉔문단은 '고지 의무의 개념-고지 의무의 역할'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첫 문장의 '이러한'이 지시하는 바를 생각하는 것이 지문 독해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러한'은 ㉓문단 마지막 문장의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을 의미해요. 그래서 ㉔문단의 첫 문장은 고지 의무의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공정한 보험(㉓문단)이 되게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해요.

5 보험 계약 체결 전 / 보험 가입자가 고이나 중대한 과실로 /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㉔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㉔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㉔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내용독해** ㉔문단의 중심 내용은 '계약 해지권의 개념과 제한'이에요. 가입자가 고의든 실수이든 보험을 가입할 때 자신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가입자가 보험사를 속인 것이 되잖아요? 이걸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건데, 말 그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보험사는 '이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한마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일 이미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입자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알면서도 계약을 맺었거나, 누가 봐도 고지 의무 위반이 뻔한데, 그걸 모르고(실수로) 계약을 맺었다면 보험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험사가 해지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내에서만 행사하게 해서 가입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한편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보험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하는군요.

**구조독해** ㉔문단은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계약 해지권의 개념과 성격-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에 대한 제한-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있지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㉔문단에서 가입자가 지켜야 할 고지 의무를 설명했는데, 만일 가입자가 이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㉔문단은 그럴 경우 보험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 해지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㉔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내용독해** ㉔문단의 중심 내용은 '고지 의무의 의의'예요. 고지 의무는 다른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 않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정한 보험에 더 가까워질 테고, 이를 통해 ㉔문단에서 설명했던 보험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 들죠. 이것이 바로 고지 의무의 의의예요.

**구조독해** ㉔문단은 '보험에서 고지 의무의 기능-고지 의무의 의의'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이 지문은 ㉔문단에서 보험의 개념을 제시한 다음, ㉔문단에서 이상적인 형태인 공정한 보험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㉔문단에서는 실제 현실에서 보험사가 공정한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밝힌 후, ㉔문단에서는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인 '고지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㉔문단에서는 만일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어겼을 때 보험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 해지권'을 설명한 다음, ㉔문단에서 '고지 의무'가 보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고지 의무의 의의'를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 ● 문제분석식 해설

01 **정답의 근거찾기** 글의 서술상 특징을 내용과 결부시켜 묻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지문의 내용'과 '서술 방식' 두 가지 모두 고려해야 해요. 따라서 우선 1단계 : 각 선택지를 분석하여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이때 선택지의 문장 구조가 어떤지를 중심으로 주어와 서술어는 무엇인지, 관형절이 수식하고 있는 단어 또는 어구가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세요. 2단계 : 선택지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는 문단을 찾아보고, 그 적절성을 판단해 보세요. 이때 유의할 것은 지문 전체의 내용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문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두 개 정도의 문단에만 해당한다면 적절하지 않으므로, 과감하게 버리고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세요.

3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실행하고 있다. (o)

1단계 : 이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는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의무를 실행하고 있다'예요. 이 선택지는 주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대신, 목적어가 두 개인 구조의 문장이예요.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가 두 목적어에 해당하죠. 그런데 두 번째 목적어는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이라는 관형절이 '법적 의무'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예요.

2단계 : 선택지의 두 목적어가 지문의 어디에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㉔문단에서는 보험의 개념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㉔문단에는 공정한 보험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원리가 나오죠? 이 원리는 당연히 경제학적 원리잖아요? 여기에서 첫 번째 목적어인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를 확인할 수 있군요. 다음 ㉔문단에서는 실제 현실에서의 보험에 공정한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㉔문단에서는 '고지 의무'라는 상법상 규정된 제도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㉔문단에서는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행사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을 설명한 다음, 마지막 ㉔문단에서는 고지 의무의 의의, 즉 고지 의무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3~6문단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두 번째 목적어인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 즉 '고지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따라서 ③은 적절한 설명이에요.

**오답\_선택지분석**

-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X))
- ②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는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예요. 여기서 '실효성'이란 '실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이 선택지는 '보험사가 지켜야 하는 법률 규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의미예요. 지문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계약 해지권'이죠. 그런데 이걸 [5]문단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지, 지문 전체의 서술상 특징이 될 수가 없죠. 더군다나 [5]문단에는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아요.
- ③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X))
- ④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는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로, 이 선택지는 목적어가 두 개인 구조의 문장이군요. 이 두 목적어를 내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지문에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모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목적어 '법적 규제'는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대한 법적 규제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②는 적절하지 않는 설명이에요.
- ⑤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X))
- ⑥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이에요. 이 내용은 지문에 아예 나오지 않죠. 백번 양보해서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고지 의무 위반' 하나만 제시되었을 뿐 그 원인 여러 개를 나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④는 적절하지 않아요.
- ⑦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X))
- ⑧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이에요. 이 내용은 지문의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⑧은 적절하지 않아요.

**02 정답의 근거찾기** 내용 일치 문제예요. 이런 유형은 세 단계로 푸는 게 좋다고 했죠? 우선 1단계 : 선택지를 분석하고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각 선택지의 주어-서술어 관계를 확인하거나 선택지 문장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과정인 셈이죠. 그다음 2단계 : 선택지에서 키워드를 정해서 지문의 해당 내용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때 키워드는 선택지에서 '가장 특징적인 단어나 어구' 또는 선택지 '문장의 주어' 등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3단계 : 선택지의 내용이 맞는지 지문과 대응시켜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기억이 분명하게 난다면 굳이 지문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지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O))
- 1단계 : 선택지는 '근거-판단'의 구조로, 핵심 포인트는 '중요한 사항을 근거 /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이에요.
- 2단계 : '중요한 사항'과 '보험 가입'을 키워드로 지문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를 찾을 수 있어요.
- 3단계 : 2단계에서 찾은 내용에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볼 때, ④가 적절한 이해임을 알 수 있어요.

**오답\_선택지분석**

①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X)

② 선택지는 '조건-결과'의 구조로, 핵심 포인트는 '보험사 청약, 보험 가입자 승낙 / 보험 계약 해지'예요. 우선 '청약'과 '승낙'을 키워드로 [4]문단의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를 찾을 수 있

- 어요. 그런데 이걸 선택지의 내용과 반대로 보험 계약 성립에만 해당하는군요. 그래서 다른 키워드인 '보험 계약 해지'를 중심으로 다시 [5]문단의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를 찾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보험사의 청약이나 보험 가입자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한해서 말이죠. 따라서 ①은 지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 공정한 보험이 된다. (X)
- ③ 선택지는 '조건-결과'의 구조로, 핵심 포인트는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 공정한 보험'이에요. '보험료 총액, 보험금 총액, 공정한 보험'을 키워드로, [2]문단의 '공정한 보험에서는 ~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를 찾을 수 있어요. 이는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와 모순되는군요. 따라서 ②는 지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 ④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X)
- ⑤ 선택지는 '조건-결과'의 구조로, 핵심 포인트는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이에요. '보험 사고 발생, 보험금 지급'을 키워드로, [1]문단의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를 찾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보험 사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③은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고 서술했기 때문에, 지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 ⑥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X)
- ⑦ 선택지는 '원인-결과'의 구조로, 핵심 포인트는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 /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예요.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 부여'를 키워드로 관련 내용을 찾으면 [5]문단의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잘못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⑦은 지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03 정답의 근거찾기** [가]의 내용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1단계 : [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보기>를 분석해 보고, 2단계 : 선택지의 핵심 내용을 확인한 뒤, 3단계 : [가]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선택지의 핵심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세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해요.

1단계 : 우선 [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보기>를 분석해 봅시다.

<보기>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 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먼저 A, B의 보험료를 P(A), P(B)라고 하고, 보험금을 각각 Q(A), Q(B)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A와 B의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A	B
보험료율	$\frac{P(A)}{Q(A)}$	$\frac{P(B)}{Q(B)}$
사고 발생 확률	0.1	0.2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0.1 \times Q(A)$	$0.2 \times Q(B)$

<보기>에 제시된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의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보험료율=사고 발생 확률'이라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 발생 확률×보험금'이고, 보험료율은  $\frac{(\text{보험료})}{(\text{보험금})}$ 라는 것도 확인해 두어야 해요.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A	B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P(A)=0.1 \times Q(A)$	$P(B)=0.2 \times Q(B)$
보험료율=사고 발생 확률	$\frac{P(A)}{Q(A)}=0.1$	$\frac{P(B)}{Q(B)}=0.2$

다음 두 단계를 거쳐 보면, ⑤가 적절한 이해로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어요.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

2단계 : 이 선택지의 조건은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이고, 핵심 포인트는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예요.

3단계 :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하자면 선택지의 조건에서 보험료 P(A)와 P(B) 값이 같다고 했는데, [가]에서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 보험료'라고 설명했으므로 ⑤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선택지에서 A와 B의 보험료 P(A)와 P(B) 값이 같다고 했군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서 A와 B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을 확인해 보아야 해요. A의 기댓값은 '0.1×Q(A)'이고, B의 기댓값은 '0.2×Q(B)'이죠. 여기서 '선택지의 조건은 보험료(P)일 뿐 보험금(Q)이 아니니까 판단할 수 없어!'라고 단정 짓는 순간 문제가 파 놓은 땃에 걸려 버리는 거예요. [가]에서는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보험료'라고 했으므로, <보기> 분석 두 번째 표에서 보듯이, 'P(A)=0.1×Q(A)'와 'P(B)=0.2×Q(B)'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다시 선택지의 조건 P(A)와 P(B) 값이 같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각각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인 '0.1×Q(A)'와 '0.2×Q(B)'도 같아지는 거예요.

#### 합정\_선택지분석

② (선택률 19%)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아마 '보험금이 두 배니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당연히 두 배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가]의 설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고예요. 문제를 풀 땐 항상 정답의 근거가 내 상식과 판단이 아니라, 지문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선택지의 조건은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이고, 핵심 포인트는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예요.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같아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보험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같으므로, ②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④ (선택률 22%)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보험금과 보험료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했거나, 사고 발생 확률과 보험료가 같다고 착각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선택지는 단순하게 지문에서 그 근거를 바로 찾을 수 없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선택지의 조건은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이고, 핵심 포인트는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예요. 보험금과 보험료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같다', 또는 '보험료율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같다'라는 단서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1단계에서 확인했듯이, 'P(A)=0.1×Q(A)'와 'P(B)=0.2×Q(B)'가 성립하는 거죠. 선택지의 조건에서 보험금이 같다고 했으니까, Q(A)와 Q(B)가 같은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이걸 K라고 한다면, P(A) 즉 A의 보험료는 0.1K가 되는 거고, P(B) 즉 B의 보험료는 0.2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B에서의 보험료가 A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④는 이를 반대로 서

술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한편, '보험료율= $\frac{(\text{보험료})}{(\text{보험금})}$ =사고 발생 확률'을 단서로 확인해 보면, A의 보험료율= $\frac{P(A)}{Q(A)}=0.1$ 이고, B의 보험료율= $\frac{P(B)}{Q(B)}=0.2$ 인데, 여기서 분모인 Q(A)와 Q(B)가 같은 값이므로, P(B)가 P(A)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④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 오답\_선택지분석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 선택지의 조건은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이고, 핵심 포인트는 '보험금 두 배 /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가]에서 '보험료율= $\frac{(\text{보험료})}{(\text{보험금})}$ '의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율=사고 발생 확률'이므로, A의 보험료율은 0.1로 정해져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료(P)와 보험금(Q)의 관계예요. P(A)=0.1×Q(A)죠? 따라서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돼요. 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보험료와 같다고 했으므로, ①의 서술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배가 된다는 점에서 ①은 적절하지 않아요.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 선택지의 주어는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고, 핵심 포인트는 '서로 같다'예요. 일단 주어의 의미를 분석해 봅시다. [가]에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A와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보기>에 제시된 A와 B의 사고 발생 확률과 같아요. 즉, A의 보험료율은 0.1이고, B의 보험료율은 0.2가 되는 거죠. 그런데 ③에서는 이 두 값이 같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04 정답의 근거찾기** 지문의 핵심 정보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예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개념이 여러 문단에 걸쳐져 있어서 내용 일치 문제와 비슷하게 풀어야 해요. 우선 1단계 :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해 보고, 2단계 : 지문에서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찾은 다음, 3단계 :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해요.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1단계 : 선택지의 주어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이고, 핵심 포인트는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예요.

2단계 :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문에서 찾으면 ⑤문단의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를 찾을 수 있어요.

3단계 : 2단계에서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일반적인 법에서 법을 위반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고지 의무를 위반한 가입자에게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서술하고 있군요. 이는 지문 내용과 모순되는군요.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다만 보험 계약만 해지될 뿐이죠.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아요.

#### 오답\_선택지분석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선택지의 주어는 '보험사'이고, 핵심 포인트는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에요. 이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은 ④문단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②의 설명은 적절해요.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 선택지의 주어는 '보험사'이고, 핵심 포인트는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예요. 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③문단의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하다.'와 ㉔문단의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예요. 두 문단에 걸쳐져 있지만 두 문장을 종합하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들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곧 '고지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㉓의 설명은 적절해요.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㉔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는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예요. 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㉓문단의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예요. 여기서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은 '고지 의무'를 의미해요. 따라서 ㉔의 설명은 적절해요.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㉔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는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예요. 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㉔문단의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예요. 이를 통해 볼 때 ⑤의 설명은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05 정답의 근거찾기** 지문의 내용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했을 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1단계 : <보기>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2단계 :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여, 3단계 : 지문 내용과 <보기>를 바탕으로 선택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세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해요.

<보기>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1단계 : <보기>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입자 B가 고지 의무를 어겼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보험사 A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A는 B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 두 단계를 거쳐 보면 ④가 가장 적절한 추론으로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어요.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2단계 : 이 선택지는 '조건-판단'의 구조로, 조건은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이고 핵심 포인트(판단)는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예요.

3단계 : 이 선택지의 조건과 관련된 지문의 내용은 ㉕문단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예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선택지의 조건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대로 A(보험사)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④가 가장 적절한 추론이 되는 거죠.

**합정\_선택지분석**

③ (선택률 18%)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㉔ 이 선택지를 선택한 학생들은 아마 '계약 체결 당시 A와 B 모두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선택지의 내용을 판단할 때 그 근거를 지문에서 찾지 않고,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범하기 쉬운 실수예요. 선택지의 조건은 두 가지로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와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이고, 핵심 포인트는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예요. 이 두 조건과 관련된 지

문 내용은 ㉕문단의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예요. 이를 바탕으로 볼 때, A는 B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험사의 해지권이 배제된다는 건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니까요.

**오답\_선택지분석**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㉔ 선택지의 조건은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이고, 핵심 포인트는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예요. 이 선택지의 조건과 관련된 지문 내용은 ㉕문단의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예요. 이를 바탕으로 볼 때, A는 계약 해지권이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아요.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㉔ 선택지의 조건은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이고, 핵심 포인트는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예요. 선택지의 조건과 관련된 지문 내용은 ㉕문단의 '보험사는 ~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와 '계약 당시에 ~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예요.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선택지의 조건에 따르면 보험사 A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아요.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㉔ 선택지의 조건은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이고, 핵심 포인트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예요. 선택지의 조건과 관련된 지문 내용은 ㉕문단의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즉시 알렸다고 하더라도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아요.

**06 정답의 근거찾기** 어휘의 의미와 사용을 묻는 문제로, 선택지의 문장에 해당 어휘를 사용한 것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예요.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겠지만, 만일 특정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문맥을 활용하여 그 적절성을 판단해 보아야 해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1단계 : 지문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㉔~㉖의 의미를 파악하고, 2단계 : 지문의 ㉔~㉖가 포함된 문장과 해당하는 선택지 문장을 비교하면서, ㉔~㉖의 사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해요. 이때 주의할 것은 ㉔~㉖의 어휘의 의미가 동일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동시에, 특별한 호응 관계를 이루는 어휘인지를 판단해야 해요.

① ㉔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1단계 : ㉔ '대비(對備)'는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뜻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㉔ 대비할 수 있다.'라는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어요.

2단계 : 선택지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문장에서의 '대비(對比)'의 의미는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이에요.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서로 비교해 본다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아요.

**오답\_선택지분석**

② ⑥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⑥ 파악하여'에서 '파악(把握)'은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앗'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선택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③ ③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③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③ 인상할 수밖에 없다.'에서의 '인상(上升)'은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림'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선택지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④ ④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④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④ 배제된다.'에서의 '배제(排除)'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선택지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⑤ ⑤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 ⑤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⑤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에서의 '전가(轉嫁)'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움'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선택지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5-⑧ 기술+예술 / 07-12**

07 ① 08 ⑤ 09 ④ 10 ④ 11 ④ 12 ②

**Self 지문분석**

**정답** ① 콘크리트, 돔(지붕) ② 골재, 수화, 형태, 크기, 종류 ③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인장력, 포아송 비, 0.3, 0.15 ④ 기둥, 예술적 영감, 사보아 주택 ⑤ 인장 강도, 콘크리트, 킴벨 미술관 ⑥ 건축 미학, 유기적인 ⑦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인 관계

**실전적 지문독해**

①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①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 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돔 지붕이 (지름 45m 남짓의 넓은) 원형 내부 공간과 이어지도록 하였고, /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m가 넘는) ① 원형의 천창을 내어 /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독해** ①문단의 중심 내용은 '로마 시대부터 사용된 콘크리트 : 판테온'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학교 건물, 아파트 등 대부분의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흔히 근대 문명이 발전한 후에야 콘크리트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려 2,000년 전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었어요. 그 증거가 되는 건물이 '판테온'인데, 판테온의 지붕에 해당하는 돔은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었어요. 판테온은 돔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두께를 줄여 무게를 줄였고, 그 가운데에는 원형의 창을 내어 빛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된 건물이었어요.

**구조독해** ①문단은 '건축 재료로서의 콘크리트-로마 시대의 콘크리트 건축 : 판테온-판테온의 돔 지붕'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첫 문장은 콘크리트를 소개하고, 둘째 문장에서 판테온으로 화제를 전환한 다음, 셋째 문장부터는 판테온의 돔 지붕을 설

명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테온에도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죠? 그래서 다음 문단에서는 콘크리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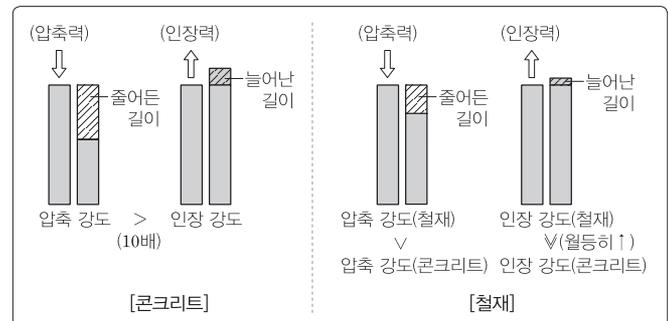
②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 (콘크리트에서 결합재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③ 접착을 띠는 상태가 되며,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 /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도 좋다.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 경화시키면 /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콘크리트의 골재는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골재들 간의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용독해** ②문단의 중심 내용은 '콘크리트의 개념과 특성'이에요. 간단하게 '콘크리트 = 시멘트 + 골재(모래와 자갈 등) + 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여기서 골재들이 서로 붙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멘트예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굳어서 딱딱해지는 과정을 '수화 반응'이라고 했어요. 콘크리트는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와 밀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구조독해** ②문단은 '콘크리트의 정의-콘크리트의 형성 과정(수화 반응)-콘크리트의 이용-콘크리트의 특성'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①문단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축물인 판테온을 중심으로 서술했다면, ②문단은 건축의 재료인 콘크리트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③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 형태 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다. (압축력이나 인장력에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 단위 면적당 최대의 힘을 각각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다. 또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 / 훨씬 길다.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철재는 /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다. 특히 인장 강도는 월등히 더 높다. 따라서 보강재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다만 철근은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 대개는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 그 지점을 ③ 위주로 철근을 보강한다.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 이때 필요한 것이 포아송 비이다.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크며, / 대체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는 0.15 정도이다.

**내용독해** ③문단의 중심 내용은 '건축 재료로서 철근 콘크리트의 특징과 영향'이에요. 철근 콘크리트가 건축 재료로 사용되면서 견고하고도 형태가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철근 콘크리트가 콘크리트보다 더 견고해진 이유는 당기는 힘(인장력)에 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을 철재로 보완했기 때문이에요. 콘크리트는 당기는 힘에 취약한데, 철재가 당기는 힘에 더 강하니까 철재를 넣으면 당기는 힘에도 강해지는 건 당연하죠. 콘크리트와 철재의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③문단의 '외부 선거 전문가로 당료들을 구성하는 선거전문가정당 체계를 통해, 선거전문가정당 모형에서는 영입된 인재, 즉 외부 선거 전문가들이 당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기>의 '이 유형의 정당은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고'를 통해, 기업가정당에서는 외부 전문가 즉 영입된 인재들이 당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당을 운영하는 주체는 당료(당의 관료)이므로, 기업가정당 역시 영입된 인재들로 당료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②는 적절해요.

⑤ 포스트카르텔정당 모형과 기업가정당을 대중정당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당원의 역할이 제약되기 때문이요. (○) 선택지는 공통점을 서술하고 있으며, 비교 대상은 '포스트카르텔정당 모형과 기업가정당'이고, 주어는 '대중정당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고, 핵심 포인트는 '당원의 역할이 제약되기 때문'이에요. ⑥문단의 '공직후보 선출권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는 포스트카르텔정당 전략'에서 포스트카르텔정당 모형은 당원이 자기 당의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역할에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기>의 '당원의 역할이 거의 없는 관료적인 조직에서 기업가정당의 당원 역시 역할이 거의 없으므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에 비해 ①문단의 '당의 정책과 후보를 당원 중심으로 결정하고'를 통해 볼 때, 대중정당은 당원이 당의 운영에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카르텔정당 모형과 기업가정당은 모두 대중정당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⑤는 적절해요.

## 12 추가훈련\_新문제

**정답의 근거찾기** 어휘의 의미와 사용을 묻는 문제로, 선택지의 문장에 해당 어휘를 사용한 것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예요.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겠지만, 만일 특정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문맥을 활용하여 그 적절성을 판단해 봐야 해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1단계 : 지문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①~④의 의미를 파악하고, 2단계 : 지문의 ①~④이 포함된 문장과 해당하는 선택지 문장을 비교하면서, ①~④의 사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해요.

③ ㉔ : 그녀는 평생 자신의 전공 분야를 추구해 왔다. (×)  
1단계 :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㉔추구하는 탈물질주의'라는 맥락에서의 '추구(追求)'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이라는 뜻이에요.  
2단계 : 선택지 문장 '그녀는 평생 자신의 전공 분야를 추구해 왔다.'에서의 '추구(追求)'는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함'이라는 의미예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과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함'은 서로 다른 의미죠? 따라서 ③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정답을 찾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추구'에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함'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 오답\_선택지분석

① ㉓ : 그의 부대는 다른 부대에 비해 기율이 엄했다. (○) '장기인들이 정부 내에서 강한 ㉓기율을 지니는'에서의 '기율(紀律)'은 '도덕상으로 여러 사람에게 행위의 표준이 될 만한 질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이는 선택지 '그의 부대는 다른 부대에 비해 기율이 엄했다.'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② ㉔ :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의 체계 속에 속해 있다. (○) '외부 선거 전문가로 당료들을 구성하는 선거전문가정당 ㉔체계로 전환되기도 했다.'에서의 '체계(體系)'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이는 선택지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의 체계 속에 속해 있다.'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④ ㉔ : 잦은 왕래 덕분에 그들의 유대가 돈독해졌다. (○) '정당은 지지 계층 및 집단과의 ㉔유대를 잃어 가기 시작했다.'에서의 '유대(紐帶)'는 '끈과 띠'라는 뜻으로, 둘 이상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하게 하는 것, 또는 그런 관계를 의미해요. 이는 선택지 '잦은 왕래 덕분에 그들의 유대가 돈독해졌다.'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⑤ ㉔ : 그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다. (○) '어전히 책임정당정치를 일정한 ㉔구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에서의 '구현(具現)'은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이는 선택지 '그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다.'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 12-㉔ 과학 / 13-18

13 ㉔ 14 ㉓ 15 ㉔ 16 ㉓ 17 ㉔ 18 ㉔

### Self 지문분석

**정답** ① 절대 온도 OK, 레이저 냉각 ② 운동 속도, 온도 ③ 운동량, 반비례, 비례, 반비례, 도플러 효과, 선택적 ④ 작게, 크게, 파동원, 관측자 ⑤ 공명 진동수 ⑥ 작게, 도플러 효과, a, b, 운동 속도, 온도 ⑦ 레이저 냉각의 개념과 원리

### 실전적 지문독해

①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는  $-273.16^{\circ}\text{C}$ 이며 이를 절대 온도 OK라고 한다. 실제로 OK까지 물체의 온도를 낮출 수는 없지만 그에 근접한 온도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레이저 냉각이다.

**내용독해** ①문단의 중심 내용은 '레이저 냉각에 대한 소개'예요. '절대 온도 OK =  $-273.16^{\circ}\text{C}$ '인데, 이런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 물체의 온도를 이 온도까지 낮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레이저 냉각을 사용하면 그 비슷한 온도까지 낮출 수 있군요.

**구조독해** ①문단은 '절대 온도 OK의 개념-레이저 냉각 소개'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문단의 마지막에 소개한 '레이저 냉각'이 지문 전체의 중심 화제가 될 확률이 높겠죠?

② 레이저 냉각을 이해하기 위해 / 우선 온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미시적으로 물질을 들여다보면 / 많은 수의 원자가 모인 집단에서 / 원자들은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며 다양한 속도로 운동한다. 이때 절대 온도는 원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어떤 원자의 집단에서 원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를 감소시키면 / 그 원자 집단의 온도가 내려간다. 레이저 냉각을 사용하면 / 상온(약 300K)에서 (대략 200 m/s)의 평균 운동 속도를 갖는 기체 상태의 루비듐 원자의 평균 운동 속도를 원래의 약 1/10000까지 낮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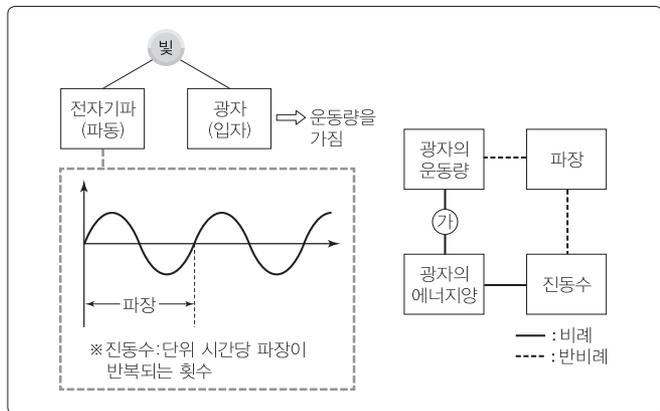
**내용독해** ②문단의 중심 내용은 '절대 온도와 레이저 냉각의 개념'이에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자들은 서로 부딪히며 다양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속도들의 평균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 '절대 온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는 '온도'는 '뜨겁거나 차가움'인데, 여기서서는 그게 아니라 '원자들의 운동 속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독해의 핵심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물질 내부 원자들이 빨리 움직이면 절대 온도가 높고, 느리게 움직이면 낮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는 것, 즉 냉각을 하려면 원자들의 속도를 낮추면 되겠죠? 레이저 냉각은 결국 어떤 물체 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운동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루비듐 원자를 예로 들었는데, 상온에서 기체 상태의 루비듐 원자가 가진 평균 운동 속도를 원래의 1/10000까지 낮추었다면, 루비듐의 온도가 엄청 낮아졌겠군요.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상온(=300K)에서 속도가 200 m/s인데, 이를 1/10000로 낮추었다면 레이저 냉각으로 속도가 0.02 m/s가 된 거죠.  $300\text{K} : (200\text{m/s})^2 = A : (0.02\text{m/s})^2$ 라는 비례식을 세워서 A 값을 구해 보면(운동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요),  $40000A = 300 \times 0.0004$ 가 되고, A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A = \frac{0.12}{40000} = \frac{3}{1000000} = 0.000003\text{K}$ 가 되는 거죠. ①문단에서 OK는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근접한 온도를 얻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구조독해** ②문단은 '절대 온도의 개념-원자들의 운동 속도와 온도의 관계-레이저 냉각의 예시'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②문단은 ①문단에서 소개한 레이저 냉각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군요. ②문단 첫 문장을 통해, ②문단이 온도의 개념을 바탕으로 레이저 냉각의 개념을 설명하는 구조라는 걸 간파해야 해요. 그리고 이를 절

대 온도의 정의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네요.

3 그렇다면 레이저를 이용하여 어떻게 원자의 운동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까? 날아오는 농구공에 정면으로 야구공을 던져서 부딪치게 하면 / 농구공의 속도가 느려진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움직이는 원자에 레이저 빛을 쏘아 충돌시키면 / 원자의 속도가 줄어줄 수 있다. 이때 속도와 질량의 곱에 해당하는 운동량을 작아진다. 빛은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면서 / 동시에 광자라는 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 운동량을 갖는다. 광자는 빛의 파장에 반비례하는 운동량을 가지며 /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다. 또한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레이저 빛은 (햇빛과 같은) 일반적인 빛과 달리 / 일정한 진동수의 광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레이저 빛을 구성하는 광자가 원자에 흡수될 때 / 광자의 에너지만큼 원자의 내부 에너지가 커지면서 / 광자의 운동량이 원자에 전달된다. 실제로 상온에서 200m/s의 속도로 다가오는 루비듐 원자에 레이저 빛을 쏘아 / 여러 개의 광자를 연이어 루비듐 원자에 충돌시키면 / 원자를 거의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문제는 원자가 정지한 순간 레이저를 끄지 않으면 / 원자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원자를 하나 하나 따로 관측할 수 없고 / 각 원자의 운동 속도에 맞추어 각 원자와 충돌하는 광자의 운동량을 따로 제어할 수도 없으므로 / 실제 레이저를 이용해 원자의 온도를 내리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이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도플러 효과의 원자가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내용독해 1 3문단의 중심 내용은 '레이저 냉각의 원리와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에요. 날아오는 농구공(=원자)에 정면으로 야구공(레이저 빛)을 던져 부딪치게 하면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그다음 '운동량, 파장, 파장'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해하기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원자나 레이저 빛(광자)이 가진 '운동량'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학 용어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림>과 같이 이해를 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례/반비례 관계'예요. 이런 건 반드시 문제로 묻거든요. '광자의 운동량, 파장, 진동수, 광자의 에너지량'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해 보세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고급 독해로 들어가 볼까요? 지문에서는 '광자의 운동량'과 '광자의 에너지량' 사이의 관계인 ㉠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광자의 에너지량-진동수(비례)', '진동수-파장(반비례)', '파장-광자의 운동량(반비례)'이라는 세 관계만 제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자의 운동량-광자의 에너지량' 사이의 관계인 ㉡가 '비례 관계'라는 것을 추론해야 해요.

그 다음, 또 기억해야 할 원리는 '광자가 원자에 흡수될 때 광자의 에너지만큼 원자의 내부 에너지가 커지면서 광자의 운동량이 원자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 빛이 원자에 부딪칠 때, 원자는 광자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죠. 문제는 원자가 멈춘 다음에도 계속 광자가 부딪치면 원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레이저 냉각은 원자의 운동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원자가 움직이게 만들면 온도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게 될 테니까. 원자가 정지한 순간 정확하게 레이저를 꺼야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군요. 또 다른 문제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엄청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다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도플러 효과'와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원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구조독해 1 3문단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원자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빛의 속성-레이저 빛의 속성-레이저를 이용해 원자의 속도를 감소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문제 해결 방법'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2문단에서 온도를 낮추려면 원자의 운동 속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일반적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면, 3문단에서는 레이저 냉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원자의 속도를 감소시키는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은 '유추'의 서술 방식을 사용하여, 레이저 냉각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군요. 그리고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술한 문제 해결 방안을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4 사이렌과 관측자가 가까워질 때에는 / 사이렌 소리가 원래의 소리보다 더 높은 음으로 들리고, / 사이렌과 관측자가 멀어질 때에는 더 낮은 음으로 들린다. 이처럼 (빛이나 소리와 같은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동원과 관측자가 멀어질 때는 파동의 진동수가 더 작게 감지되고, / 파동원과 관측자가 가까워질 때는 파동의 진동수가 더 크게 감지되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 이때 원래의 진동수와 감지되는 진동수의 차이는 (파동원과 관측자가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에 비례한다. 이것을 레이저와 원자에 적용하면 / 레이저 광원은 파동원이고 원자는 관측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레이저 광원에 다가가는 원자에게 레이저 빛의 진동수는 원자의 진동수보다 더 높게 감지되고, / 레이저 광원에서 멀어지는 원자에게 레이저 빛의 진동수는 더 낮게 감지된다.

내용독해 1 4문단의 중심 내용은 '도플러 효과의 개념과 적용'이에요. 도플러 효과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보죠. 예를 들어 사이렌 소리의 진동수(주파수)가 100Hz라고 한다면, 관측자에게 파동원이 가까워질 때 관측자는 사이렌 소리의 진동수를 110Hz인 더 고음으로 감지하고, 반대로 멀어질 때 90Hz로 더 저음으로 감지한다는 거예요. 즉 실제 소리 높이는 변함이 없지만, 관측자에게 가까게 다가올 때에는 실제보다 더 고음이라고 느끼고, 멀어질 때에는 더 저음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는 파동원, 즉 소리나 빛을 내는 대상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거군요. 그리고 실제 진동수와 감지되는 진동수의 차이, 즉 얼마나 더 고음/저음으로 들리느냐는 파동원과 관측자 사이의 운동 속도에 비례하는 거군요. 파동원이 관측자에게 더 빨리 다가올수록 관측자는 더 고음으로 인식할 거라는 거죠. 참고로 첫 문장에서는 '더 높은 음/더 낮은 음'이라고 설명했는데, 둘째 문장에서 '파동의 진동수가 더 크게/더 작게'라고 설명했지요? 이 두 문장을 종합해서 진동수와 음의 높이가 비례한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이 도플러 효과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독해력이예요.

도플러 효과의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한 예는 '소리'이지만, 이제 적용하는 대상인 '레이저와 원자'는 '빛'이란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파동원=레이저 광선, 관측자=원자'라는 관계도 잘 기억하고 독해해야 해요. 그러니까 레이저 광원에 원자가 다가가더라도, 빛의 진동수를 감지하는 주체가 '원자'라는 거죠. 원자는 자기가 다가가지만, 누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동원과 관측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느냐/멀어지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원자는 파동원인 레이저 광원과 가까워지면 거기서 나오는 레이저 빛(광자)의 진동수를 실제보다 더 크게 감지할 것이고, 반대로 멀어지면 레이저 빛(광자)의 진동수를 실제보다 더 작게 감지하는 거죠.

구조독해 1 4문단은 '도플러 효과의 사례-도플러 효과의 개념과 특성-레이저와 원자에 적용한 도플러 효과'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한 문제 해결 방법 중 첫 번째인 '도플러 효과'를 4문단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5문단에서는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한편, 4문단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졌어요. 첫째~셋째 문장은 도플러 효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넷째, 다섯째 문장은 도플러 효과를 레이저와 원자에 적용한 내용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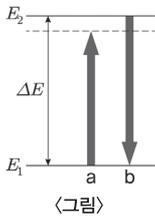
5 한편 정지해 있는 특정한 원자는 (모든 진동수의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한 진동수, 즉 공명 진동수의 빛만을 흡수한다. 이것은 원자가 광자를 흡수할 때 / 원자 내부의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 E<sub>2</sub>에서 그보다 더 높은 특정 에너지 준위 E<sub>3</sub>로 옮겨가는 것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는 두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값의 차이 ΔE에 해당한다.

내용독해 1 5문단의 중심 내용은 '공명 진동수의 빛만 흡수하는 원자의 성질'이에요. 원자가 고유한 진동수, 즉 공명 진동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해해야 해요. 어떤 원자의 공명 진동수와 다른 진동수를 가진 빛은 아무리 원자에 쏘여 봐도 흡수가 안 되는 거고, 빛의 진동수를 조절해서 특정한 원자의 공명 진동수에 맞추게 된다면, 원자는 그 빛을 흡수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이해할 때에는 아래의 그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해요.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준위란 에너지의 위치인데, 그냥 에너지의 양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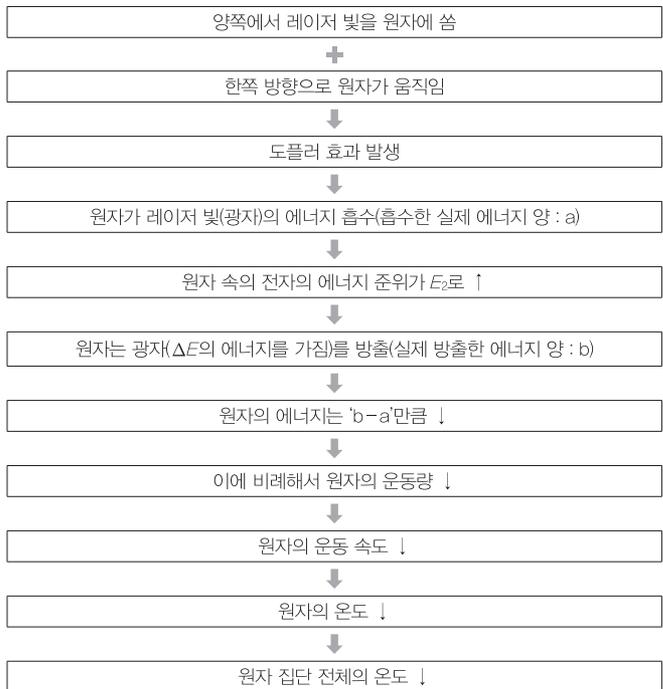
구조독해 1 5문단은 '공명 진동수의 빛만 흡수하는 원자의 성질-그 이유와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량'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예측한 대로 3문단에서 언급한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서술하고 있군요. 그래서 4, 5문단은 대등한 관계에 있고요. 이걸 5문단

첫머리에서 '한편'이라는 접속어를 통해 알려 주고 있어요.

6 그러면 어떻게 ㉠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레이저 냉각을 수행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어떤 원자의 집단들 사이에 두고 / 양쪽에서 레이저 빛을 원자에 쏘되 / 그 진동수를 원자의 공명 진동수보다 작게 한다. 원자가 한쪽 레이저 빛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 도플러 효과에 의해 원자에서 감지되는 레이저 빛의 진동수가 커지는데, / 그 값이 자신의 공명 진동수에 해당하는 원자는 레이저 빛을 흡수하게 된다. 이때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는  $\Delta E$ 보다 작지만(그림)의 a, / 원자는 (도플러 효과 때문에) 공명 진동수를 갖는 광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낮은 준위  $E_1$ 에 있던 전자를 허용된 준위  $E_2$ 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불안정해진 원자는 잠시 후에  $\Delta E$ 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하면서 / 전자를  $E_2$ 에서  $E_1$ 로 내려놓는다(그림)의 b, 이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원자가 광자를 흡수할 때에는 일정한 방향에서 오는 광자와 부딪쳐 원자의 운동 속도가 계속 줄어들지만, / 원자가 광자를 내놓을 때에는 임의의 방향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 결국 광자의 방출은 원자의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자에서 광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 원자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 원자의 평균 운동 속도가 줄고 / 그에 따라 원자 집단 전체의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내용독해** ㉠문단의 중심 내용은 '레이저 냉각의 과정과 원리'예요. A가 천 원짜리 지폐 9장을 B에게 주면, B는 그것이 10장인 줄 알고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바꿔 주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바꿀 때마다 B는 천 원씩 손해를 보는 거죠. B의 잔 재산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번 바꾸게 되면 B의 재산은 0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A는 레이저 광선에, B는 운동하는 원자에 해당하고, B가 가진 돈은 원자의 운동 에너지예요. 그리고 돈을 한 번 바꾸는 건 레이저 광선의 광자가 운동하는 원자에 부딪치는 거고, B가 손해 보는 천 원은 ' $\Delta E$ 에서 a의 에너지를 뺀 만큼의 에너지양'이에요. 그림에서  $E_2$ 와 점선 사이의 에너지양인 거죠. 그러니까 B가 돈을 한 번씩 바꾸어 줄 때, 재산이 줄어들듯이, 원자는 레이저 광선의 광자를 흡수했다가 다시 광자를 내놓으면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고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구조독해** ㉠문단은 '레이저 냉각을 위한 조건 설정-도플러 효과 발생-원자의 광자 흡수와 방출 과정과 원리-결과'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문단의 첫 문장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문단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레이저 냉각이 일어나는 과정을 그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문단에서 중심 화제인 '레이저 냉각'을 소개하고, 그 개념을 ㉡문단에서 밝힌 다음, ㉢문단에서는 레이저 냉각의 원리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후, 도플러 효과는 ㉣문단에서, 원자의 선택적 광자 흡수는 ㉤문단에서 각각 설명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실제 레이저 냉각이 일어나는 과정을 그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명하고 있어요.

● 문제분석식 해설

13 정답의 근거찾기 내용 일치 문제예요. 이런 유형은 두 단계로 푸는 게 좋아요. 우선 1단계 : 선택지를 분석하고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각 선택지의 주어-서술어 관계를 확인하거나 선택지 문장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과정인 셈이죠. 그다음 2단계 : 그 내용이 맞는지를 지문과 대응시켜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기억이 분명하게 난다면 굳이 지문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지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 레이저 냉각은 광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원자의 성질을 이용한다. (○)  
1단계 : 이 선택지의 주어는 '레이저 냉각'이고, 핵심 포인트는 '광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원자의 성질을 이용'이에요.  
2단계 : ㉢문단의 '실제 레이저를 이용해 원자의 온도를 내리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이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도플러 효과와 원자가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에서, '레이저를 이용해 원자의 온도를 내리는 것은 곧 이 선택지의 주어인 '레이저 냉각'을 의미하죠. 그리고 '원자가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는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와 일치하는군요. 따라서 ㉡가 정답이 되는 거죠.

오답 선택지분석

㉠ 움직이는 원자의 속도는 도플러 효과로 인해 더 크게 감지된다. (×) Ⓛ 선택지의 주어는 '움직이는 원자의 속도'이고, 핵심 포인트는 '도플러 효과로 인해 더 크게 감지'예요. 도플러 효과의 특징인 ㉣문단의 '이때 원래의 진동수와 감지되는 진동수의 차이는 파동원과 관측자가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에 비례한다.'를 통해 움직이는 원자의 속도는 '원래의 진동수와 감지되는 진동수의 차이'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감지되는 진동수'가 달라지는 것이 도플러 효과이므로, '원자의 속도'와 '도플러 효과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도플러 효과는 진동수를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감지하는 현상이죠.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진동수가 아니라 원자의 속도를 더 크게 감지한다고 설명하고 있군요. 따라서 ㉠은 적절하지 않아요.

㉢ 레이저 냉각은 원자와 레이저 빛을 충돌시켜 광자를 냉각시키는 것이다. (×) Ⓛ 선택지의 주어는 '레이저 냉각'이고, 핵심 포인트는 '광자를 냉각'이에요. ㉢문단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원자에 레이저 빛을 쏘아 충돌시키면 원자의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설명한 내용과, ㉡문단의 '어떤 원자의 집단에서 원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를 감소시키면 그 원자 집단의 온도가 내려간다.'를 종합해 볼 때, 레이저 냉각은 '광자가 아니라 원자'를 냉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은 적절하지 않아요.

㉣ 레이저 빛을 이용하여 / 원자 집단을 절대 온도 0K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 Ⓛ 선택지는 '방법-결과'의 구조로, 방법은 '레이저 빛을 이용'이고, 결과(핵심 포인트)는 '절대 온도 0K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는 ㉠문단의 '실제로 0K까지 물체의 온도를 낮출 수는 없지만'과 모순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는 적절하지 않아요.

㉤ 개별 원자의 운동 상태를 파악하여 / 각각의 원자마다 적절한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쏠 수 있다. (×) Ⓛ 선택지는 '방법-결과'의 구조로, 방법은 '개별 원자의 운동 상태를 파악'이고, 결과(핵심 포인트)는 '원자마다 적절한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는 ㉢문단의 '각 원자의 운동 속도에 맞추어 각 원자와 충돌하는 광자의 운동량을 따로 제어할 수도 없으므로'와 모순되는군요. 따라서 ㉤는 적절하지 않아요.

14 정답의 근거찾기 지문에 제시된 <그림>과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예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개념이 지문 전체에 퍼져 있어서 내용 일치 문제와 비슷하게 풀어야 해요. 우선 1단계 : 선택지의 핵심을 먼저 분석해 보고, 2단계 : 지문에서 관련 내용을 찾은 다

음, 이를 근거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해요.

① 다가오는 원자에 공명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쏘면 / 원자 내부의 전자가 E<sub>1</sub>에서 E<sub>2</sub>로 이동한다. (X)

1단계 : 선택지는 '조건-결과'의 구조로, 조건은 '다가오는 원자에 공명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쏘면'이고, 결과는 '전자가 E<sub>1</sub>에서 E<sub>2</sub>로 이동'이에요. 선택지의 조건에서 '다가오는 원자'라고 했으므로 도플러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2단계 : 5문단의 '정지해 있는 특정한 원자는 ~ 공명 진동수의 빛만을 흡수한다. 이것은 원자가 광자를 흡수할 때 원자 내부의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 E<sub>1</sub>에서 그보다 더 높은 특정 에너지 준위 E<sub>2</sub>로 옮겨가는 것만 허용되기 때문이다.'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지해 있는 특정 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택지의 조건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원자, 즉 도플러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한, 6문단의 '레이저 빛을 원자에 쏘고 그 진동수를 원자의 공명 진동수보다 작게 한다.'와 '이때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는 ΔE보다 작지만(그림)의 a, 원자는 도플러 효과 때문에 공명 진동수를 갖는 광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낮은 준위 E<sub>1</sub>에 있던 전자를 허용된 준위 E<sub>2</sub>에 올려놓는다.'를 통해 판단해 보아야 해요. 이 내용은 원자가 실제 진동수보다 더 크게 감지하는 도플러 효과가 발생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지에서처럼 다가오는 원자에 공명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쏘면 도플러 효과가 발생하여, 원자는 그 빛을 자신의 공명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로 감지하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원자는 레이저 빛의 광자를 흡수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자 내부의 전자는 E<sub>1</sub>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죠. 따라서 ①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답 선택지분석**

② 원자의 공명 진동수와 일치하는 진동수를 갖는 광자는 ΔE의 에너지를 갖는다. (O)  
선택지의 주어는 '원자의 공명 진동수와 일치하는 진동수를 갖는 광자'이고, 핵심 포인트는 'ΔE의 에너지를 갖는다'예요. 5문단의 '특정한 원자는 ~ 공명 진동수의 빛만을 흡수한다. ~ 이때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는 두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값의 차이 ΔE에 해당한다.'를 통해 볼 때, ②가 적절함을 알 수 있어요.

③ 원자가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ΔE로 일정하다. (O) 선택지의 주어는 '원자가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이고, 핵심 포인트는 'ΔE로 일정'이에요. 6문단의 '그러면 불안정해진 원자는 잠시 후에 ΔE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하면서 전자를 E<sub>2</sub>에서 E<sub>1</sub>로 내려놓는다(그림)의 b.'를 통해, ③이 적절함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주어진 '원자가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를 한 덩어리의 의미로 이해해야 해요. 만일 이걸 둘로 나누어 이해한다면 '흡수한 광자의 에너지'와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를 서로 비교하게 될 것이고, 그 경우 6문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틀렸다고 판단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④ 정지한 원자가 흡수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ΔE와 일치한다. (O) 선택지의 주어는 '정지한 원자가 흡수하는 광자의 에너지'이고, 핵심 포인트는 'ΔE와 일치'예요. 5문단의 '이때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는 두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값의 차이 ΔE에 해당한다.'를 통해, ④가 적절함을 알 수 있어요.

⑤ E<sub>1</sub>에서 E<sub>2</sub>로 전자가 이동할 때 / 광자가 방출된다. (O) 선택지는 '조건-결과'의 구조로, 조건은 'E<sub>1</sub>에서 E<sub>2</sub>로 전자가 이동할 때'이고, 결과는 '광자가 방출'이에요. 6문단의 '그러면 불안정해진 원자는 잠시 후에 ΔE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하면서 전자를 E<sub>2</sub>에서 E<sub>1</sub>로 내려놓는다(그림)의 b.'를 통해, ⑤가 적절함을 알 수 있어요.

**15 추가훈련\_新문제**

**정답의 근거찾기** 지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기>의 ㉑, ㉒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1단계 : <보기>를 분석하여 ㉑와 ㉒에 들어갈 내용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2단

계 :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그 적절성을 판단하되, 근거를 지문에 서 찾아보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1단계 : 우선 <보기>를 분석해 봅시다.

<보기>

레이저 냉각은 온도를 낮추고자 하는 원자의 양쪽에서 레이저 빛을 쏘면 원자는 ( ㉑ ), 이때 도플러 효과로 인해 원자는 자신의 공명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흡수한 다음, ( ㉒ ), 이에 비례하여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원자의 속도가 줄고 그에 따라 온도가 내려간다.

<보기>는 ㉑ 레이저 냉각의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군요. 그런데 <보기>의 문맥상 ㉑는 도플러 효과가 발생하기 전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㉑는 원자가 어느 방향의 레이저 빛을 흡수하는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㉒ 역시 <보기>의 문맥을 고려하여 들어갈 내용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원자가 광자를 흡수한 다음 과정이면서, 원자의 운동량이 줄어들기 전 과정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각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면, ㉑가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어요.

⑤ ㉑ :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오는 광자를 흡수하는데 (O)

㉒ : 실제 흡수한 광자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어 놓게 되고 (O)

2단계 : ㉑와 관련된 내용은 6문단의 '원자가 한쪽 레이저 빛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예요. 여기서 원자가 흡수하는 광자가 오는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원자가 양쪽 레이저 빛 중 한쪽 레이저 빛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원자는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오는 광자를 흡수하게 되겠군요. 한편, ㉒와 관련된 내용은 6문단의 '이때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는 ΔE보다 작지만(그림)의 a, ~ 그러면 불안정해진 원자는 잠시 후에 ΔE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하면서 전자를 E<sub>2</sub>에서 E<sub>1</sub>로 내려놓는다(그림)의 b.'예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원자는 '실제 흡수한 광자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어 놓게' 되는 거죠. 따라서 ㉑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답 선택지분석**

① ㉑ :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오는 광자를 흡수하는데 (X)

㉒ : 실제 흡수한 전자의 에너지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내어 놓게 되고 (X)

선택지의 ㉑에서는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고, 광자가 오는 방향을 잘못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㉒의 경우에는 두 군데가 잘못되었어요. 레이저 냉각의 과정에서 원자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이지, '전자의 에너지'가 아니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자가 실제 흡수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운동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이를 '더 적은 에너지'라고 반대로 서술하고 있군요.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아요.

② ㉑ :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오는 광자를 흡수하는데 (X)

㉒ : 실제 흡수한 전자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어 놓게 되고 (X)

선택지의 ㉑에서는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고, 광자가 오는 방향을 잘못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또한 ㉒에서는 실제 흡수한 에너지가 '광자의 에너지'가 아니라 '전자의 에너지'라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아요.

③ ㉑ :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오는 광자를 흡수하는데 (X)

㉒ : 실제 흡수한 광자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어 놓게 되고 (O)

선택지는 ㉒에 들어갈 말은 적절하지만, ㉑에 들어갈 말이 적절하지 않아요. ㉑에서는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고, 광자가 오는 방향을 잘못 서술하고 있군요.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아요.

④ ㉑ :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오는 광자를 흡수하는데 (O)

㉒ : 실제 흡수한 광자의 에너지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내어 놓게 되고 (X)

선택지는 ㉑에 들어갈 말은 적절하지만, ㉒에 들어갈 말이 적절하지 않아요. 원자가 실제 흡수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운동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이를 '더 적은 에너지'라고 반대로 서술

하고 있군요.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아요.

**16 정답의 근거찾기** 지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1단계 :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2단계 : ㄱ~ㄷ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여 그 적절성을 판단한 뒤, 3단계 : 선택지에서 정답을 고르는 세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해요.

<보기>

소리굽쇠는 고유한 공명 진동수를 가져서, 공명 진동수와 일치하는 소리를 가해 주면 공명하고, 공명 진동수에서 약간 벗어난 진동수의 소리를 가해 주면 공명하지 않는다. 그림과 같이 마주 향한 고정된 두 스피커에서 진동수 498Hz의 음파를 발생시키고, 공명 진동수가 500Hz인 소리굽쇠를 두 스피커 사이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v$ 의 속도로 움직였더니 소리굽쇠가 공명했다. 그 후에 다음과 같이 조작하면서 소리굽쇠의 공명 여부를 관찰했다. 단, 소리굽쇠는 두 스피커 사이에서만 움직인다.

ㄱ. 소리굽쇠를 중앙에서 왼쪽으로  $v$ 의 속도로 움직였다.  
 ㄴ. 소리굽쇠를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v$ 의 속도로 움직였다.  
 ㄷ. 왼쪽 스피커를 끄고 소리굽쇠를 중앙에서 왼쪽으로  $v$ 의 속도로 움직였다.

1단계 : <보기>의 내용은 '도플러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첫 단추가 되는군요. '공명 진동수'와 관련된 지문의 내용은 원자가 공명 진동수의 빛만 흡수한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공명 진동수'와 일치하는 소리를 가하면 공명하는, 즉 소리가 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소리굽쇠의 공명 진동수가 500Hz인데, 소리굽쇠 양쪽에 있는 스피커에서는 이보다 작은 진동수의 음파가 나오고 있군요. 이걸 ⑥문단의 원자의 공명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은 레이저 광선을 양쪽에서 쏘는 상황과 같군요. 그리고 소리굽쇠를 오른쪽으로  $v$ 의 속도로 움직였더니 소리굽쇠가 공명했다는 것은 도플러 효과로 인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실제 진동수가 498Hz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굽쇠는 500Hz로 감지하여 공명하게 된 것이고요.

2단계 : ㄱ~ㄷ의 적절성을 하나씩 판단해 봅시다.

ㄱ : '소리굽쇠를 중앙에서 왼쪽으로  $v$ 의 속도로 움직였다.'는 <보기>에서 공명이 일어난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소리굽쇠가 이동하는 방향만 바뀐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든, 왼쪽으로 이동하든 소리굽쇠는 자신의 이동 방향에서 정면으로 음파와 부딪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서 공명이 일어난 속도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므로 이 경우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 소리굽쇠는 공명을 하게 될 거예요.

ㄴ : '소리굽쇠를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v$ 의 속도로 움직였다.'는 <보기>의 공명이 일어난 상황에 비교하면 소리굽쇠가 이동한 방향은 같지만 속도가 두 배 더 빠르군요. ④문단의 '이때 원래의 진동수와 감지되는 진동수의 차이는 파동원과 관측자가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에 비례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해 봅시다.  $v$ 의 속도로 이동했을 때 소리굽쇠가 공명했다면,  $v$ 의 속도로 이동할 때 원래의 진동수(498Hz)와 감지되는 진동수(500Hz)의 차이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배의 속도인  $2v$ 로 이동했다면 원래의 진동수와 감지되는 진동수의 차이는 4가 되겠군요. 결과적으로 소리굽쇠가 감지하는 음파의 진동수는 502Hz가 되므로, 소리굽쇠는 공명하지 않을 거예요.

ㄷ : '왼쪽 스피커를 끄고 소리굽쇠를 중앙에서 왼쪽으로  $v$ 의 속도로 움직였다.'의 조건에서 핵심 포인트는 '왼쪽 스피커를 끄고' '왼쪽으로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굽쇠에 부딪치는 음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도플러 효과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소리굽쇠에 아무런 음파가 부딪치지 않으므로 공명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해요.

3단계 : 위에서 하나씩 검토해 본 바와 같이 ㄱ~ㄷ 중에서 오직 ㄱ만이 적절한 추론이군요. 따라서 ①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17 정답의 근거찾기** 지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1단계 :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2단계 :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한 뒤, 3단계 : 각 선택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세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해요.

1단계 : <보기> 사례의 특징을 분석해 봅시다.

<보기>

	루비듐	리튬
원자량(원자의 질량)	85.47	6.94
정지 상태에서 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	780nm	670nm

<보기>는 루비듐과 리튬의 두 가지 특성을 비교하고 있군요. 첫째 기준은 '원자의 질량'인데, 이와 관련된 지문의 내용은 ③문단의 '빠르게 움직이는 원자에 레이저 빛을 쏘아 충돌시키면 원자의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때 속도와 질량의 곱에 해당하는 운동량도 작아진다.'예요. 여기서 루비듐은 리튬에 비해 질량이 훨씬 크니까, 운동량도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둘째 기준은 '정지 상태에서 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군요. 이걸 ⑤문단의 '정지해 있는 특정한 원자는 모든 진동수의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한 진동수, 즉 공명 진동수의 빛만 흡수한다.'를 통해 볼 때, 두 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공명 진동수의 개념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군요. 문제는 둘째 기준이 '진동수가 아니라 파장'이라는 점이지요. 그래서 ③문단의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를 찾아서 고려할 수 있어야 해요.

② 원자가 흡수하는 광자의 운동량은 리튬 원자가 루비듐 원자보다 작다. (X)

2단계 : 선택지의 주어는 '원자가 흡수하는 광자의 운동량'이고, 핵심 포인트는 '리튬 원자가 루비듐 원자보다 작다.'예요.

3단계 : 일단 주어인 원자가 흡수하는 광자의 '운동량'과 관련해서는 ③문단의 '광자라는 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운동량을 갖는다. 광자는 빛의 파장에 반비례하는 운동량을 가지며'를 찾을 수 있어요. 리튬이 정지했을 때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루비듐보다 작으므로, 흡수하게 되는 광자의 운동량은 '리튬 > 루비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파장과 빛(광자)의 운동량은 반비례 관계니까요. 그런데 이 선택지에서는 이를 반대로 '리튬 < 루비듐'이라고 서술했군요. 따라서 ②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답 선택지분석**

① 리튬의 공명 진동수는 루비듐의 공명 진동수보다 크다. (O) (X) 선택지의 주어는 '리튬의 공명 진동수'이고, 핵심 포인트는 '루비듐의 공명 진동수보다 크다'예요. 이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③문단의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예요. <보기>의 정지 상태에서 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의 크기는 '루비듐 > 리튬'이지만, 공명 진동수는 반대로 '리튬 > 루비듐'이에요. 파장과 진동수가 반비례하니까요. 따라서 ①은 적절해요.

③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 리튬 원자의 운동량이 루비듐 원자의 운동량보다 작다. (O) (X) 선택지의 조건은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이고, 주어는 '리튬 원자의 운동량'이고 핵심 포인트는 '루비듐 원자의 운동량보다 작다'예요. 운동량은 속도와 질량의 곱이죠(③문단). 여기서 속도가 같으므로, 리튬 원자와 루비듐 원자의 운동량은 질량에 비례하는군요. <보기>의 표에서 두 원자의 질량 크기는 '루비듐 > 리튬'이므로, 두 원자의 운동량 역시 '루비듐 > 리튬'이 되는 거죠. 따라서 ③은 적절해요.

④ 루비돔 원자에 레이저 냉각을 일으키는 레이저 빛은 같은 속도의 리튬 원자에서는 냉각 효과가 없다. (○) 선택지의 주어는 '루비돔 원자에 레이저 냉각을 일으키는 레이저 빛'이고, 핵심 포인트는 '같은 속도의 리튬 원자에서는 냉각 효과가 없다'예요. ⑥문단의 내용을 종합하면, 레이저 냉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각 원자의 공명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약간 작은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⑤문단의 '특정한 원자는 ~ 고유한 진동수, 즉 공명 진동수의 빛만을 흡수한다.'를 통해, 원자의 종류에 따라 흡수하는 빛의 공명 진동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루비돔 원자에 레이저 냉각을 일으키는 레이저 빛은 루비돔 원자의 공명 진동수보다 약간 작은 진동수를 지닌 빛이므로, 같은 속도의 리튬 원자에 쏘아도 흡수되지 않으므로 냉각 효과도 없을 거예요. 따라서 ④는 적절해요.

⑤ 리튬 원자에 레이저 냉각을 일으킬 때에는 / 레이저 빛의 파장을 670nm보다 더 큰 값으로 조정한다. (○) 선택지는 '조건-판단'의 구조로, 조건은 '리튬 원자에 레이저 냉각을 일으킬 때'이고, 판단은 '빛의 파장을 670nm보다 더 큰 값으로 조정'이에요. 1단계 분석에서 보았듯이 파장과 진동수가 반비례한다는 점을 다시 기억해야 해요. 리튬 원자에 레이저 냉각을 일으킬 때, 도플러 효과를 고려하여 리튬 원자의 공명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쏘게 되죠. 그런데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하므로, 리튬 원자에 쏘는 레이저 빛의 진동수를 공명 진동수보다 낮게 하면 이 빛의 파장은 670nm보다 더 크겠군요. 따라서 ⑤는 적절해요.

### 18 추가훈련\_新문제

**정답의 근거찾기** 밑줄 그은 ㉠의 문맥적 의미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찾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1단계, 문맥을 통해 ㉠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때에는 문장의 맥락을 살펴 보면서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2단계, 각 선택지의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판단해야 해요. 만일 어휘력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다면, 선택지의 단어를 ㉠에 대입해서 읽어 본 후, 원래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지, 문맥이 어색해지지 않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이때,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면, 또는 문장이 어색해진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돼요.

1단계 : ㉠의 맥락은 '루비돔 원자에 레이저 빛을 ㉠ 쏘아'로, 여기서 '쏘다'는 '어떤 대상에 빛을 비추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말은 '발사(發射)하여', '비추어' 등을 떠올릴 수 있어요.

④ 조사(照射)하여 (○)

2단계 : '조사(照射)하다'는 '광선이나 방사선 파위를 쬐다'라는 뜻으로, ㉠와 바꿔 쓰기 적절하군요. 그래서 ④가 정답이에요.

#### 오답\_선택지분석

① 투사(透射)하여 (×) '투사(透射)하다'는 '빛이 물건을 꿰뚫고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② 반사(反射)하여 (×) '반사(反射)하다'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던 파동이 다른 물체의 표면에 부딪혀서 나아가던 방향이 반대로 바뀌다. 또는 방향을 반대로 바꾸다'라는 뜻으로,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③ 입사(入射)하여 (×) '입사(入射)하다'는 '하나의 매질(媒質) 속을 지나가는 소리나 빛의 파동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이르다'라는 뜻으로,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⑤ 방사(放射)하여 (×) '방사(放射)하다'는 '물체로부터 열이나 전자기파가 사방으로 방출되다'라는 뜻으로,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 13 Day

국어 1등급을 향한 완벽한 훈련법!



### 13-A 인문 / 01~05

01 ② 02 ④ 03 ⑤ 04 ⑤ 05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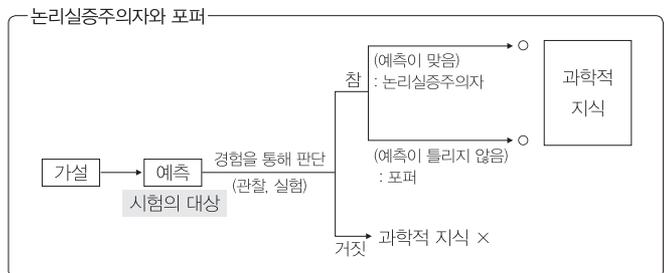
#### Self 지문분석

**정답** ① 경험, 예측, 가설 ② 가설, 기존의 지식, 전체 지식, 총체주의 ③ 분석 명제, 필연성, 순환론 ④ 주변부, 중심부, 주변부, 중심부, 중심부 ⑤ 분석 명제 ⑥ 과인의 총체주의의 개념

#### 실전적 지문독해

① ①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내용독해** ①문단의 중심 내용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지식 구분과 과학적 지식의 확장 과정'이에요. 우선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경험에 기준으로 '경험과 무관한 것(수학적 지식, 논리학적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과학적 지식)'으로 나누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이 중에서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인 과학적 지식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상은 '가설'이 아니라, '예측'이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구조독해** ①문단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지식 구분-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주장하는 과학적 지식의 확장 과정'의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요. 특정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는데, 지식을 두 유형으로 나누고, 그중 하나인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누적되는지 그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요. 첫 문단에서 이렇게 특정 학자들의 입장이 나오면, 다음 문단에서는 그들의 견해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대비되는 입장을 가진 다른 학자의 견해를 소개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해요. 다음 문단을 읽을 때에는 이 두 가지 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 글이 전개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서 글을 읽어야 해요.

② 하지만 ①과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③(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 ⑥(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과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④(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내용독해** ②문단의 중심 내용은 '과인의 총체주의'예요. 과인은 가설만으로 예측을 이끌어 낼 수 없고, '가설 + 기존 지식 + 여러 조건'을 모두 합쳐야만 예측이 논리적